

하나님의 말씀

영의 본향으로 향하는 길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2545 영의 은사는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5
5083 계시해주는 일이 영의 나라가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혼이란 무엇인가?.....	8
8008b 모든 혼은 원래의 영이다.....	8
8012 혼에 관한 추가 설명.....	9
7146 모든 혼은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한다.....	12
1618 혼. 사람 안의 영의 불씨.....	13
세상의 덧없음과 혼의 불멸.....	15
1500 사라지는 지식과 사라지지 않은 지식.....	15
7219 세상 것들의 헛됨. 자연재해와 불행한 사건들.....	16
2860 영원한 혼.....	17
1034 혼의 불멸. 은혜의 공급.....	18
죽은 후에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20
2544 자신에 대한 작업을 위해 혼의 불멸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20
3299 혼의 지속적인 삶을 믿으라.....	20
8059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22
몸과 영이 혼에 미치는 영향.....	24
2532 영과 몸은 혼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24
3414 혼을 영화시키는 일. 문질을 극복하는 일.....	25
3205 영과 혼의 결합. 거듭남.....	26
이 땅의 삶은 영적인 고향으로 가는 길.....	27
5854 이 땅에서 영의 나라를 얻는 일.....	27
5314 사랑은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이다.....	28
6298 진정한 고향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이 땅의 세상.....	29
8490 세상을 극복하는 일.....	30
7470 스스로 생각하는 일과 영의 나라와 연결.....	31
7837 자유의지.....	33
7464 종말의 때를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활용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34
7486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	35
혼을 위한 고난.....	38
1106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가시밭 길.....	38

1481 육체적 쾌락, 노년기의 질병.....	39
5904 고난의 축복.....	40
6076 질병의 축복. 혼을 위해 십자를 지는 일.....	41
죽음에 대한 두려움.....	42
2145 죽음 앞에 두려움. 죽는 순간의 기쁨 또는 고통.....	42
2776 생명의 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43
6616 죽음에 대한 두려움.....	44
6637 죽음에 대한 두려움.....	45
6042 두려움 없는 죽음의 시간. 준비 된 자세.....	46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일.....	48
7959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과정을 마치는 일.....	48
7717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49
766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51
6850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52
6579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53
죽음의 시간.....	56
1798 죽음의 순간.....	56
2348 죽음의 순간.....	57
4033 죽음의 순간. 고난에 대한 설명.....	58
7458 자주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라.....	59
육체의 죽음.....	61
6817 혼의 거처를 바꾸는 일. 육체의 죽음.....	61
5696 육체의 죽음 후에 실제적인 삶이 시작된다.....	62
7161 아무것도 소멸될 수 없다. 죽음의 문. 진정한 고향.....	63
영적인 사망의 위험성.....	64
2144 육신의 죽음 이 후에 걸 모양이 바뀌는 일. 영적인 죽음. 행함과 행함이 없음.....	64
4088 영적인 죽음. 생명의 개념.....	65
7853 운명적인 사건들. 영적인 죽음.....	66
육체의 부활.....	68
6000 육체의 부활.....	68
7262 부활. 육체의 부패.....	70
조기에 죽는 일.....	72

3258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72
3260 조기 사망. 하나님의 긍휼. 높은 나이.....	73
8770 창조의 과정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했다.....	74
3135 종말의 때의 은혜. 종말 전의 죽음. 저 세상.....	76
7538 긴 수명과 짧은 수명.....	77
자살.....	79
6807 쇠하지 않는 존재. 자살하는 일.....	79
6005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80
시신을 화장시키는 일.....	82
1899 연소. 가속화된 분해의 과정.....	82
죽음에 대한 생각.....	84
2912 죽음을 염두에 두라.....	84
5329 죽음을 기억하라는 심각한 경고.....	84
7445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혼에게 도움이 된다.....	85
생각으로 영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	88
5336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88
5916 혼이 영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일.....	89
5180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라는 진지한 경고.....	90
높은 곳으로 향하는 좁은 길과 넓은 길.....	91
6549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	91
6177 넓은 길. 유혹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92
4503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과 높은 곳으로 가는 좁은 길.....	93
7634 진정한 고향.....	94
6305 영원을 위해 창조하고 일하라.....	95
2125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공향으로 가는 길. 기도.....	96

영의 은사는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B.D. No. 2545

1942년 11월 11일

영의 나라로부터 단지 영의 선물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물이 세상적인 이익을 주지 않고, 단지 사람의 혼에 구원을 주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선물이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선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물은 이 은사를 선물로 받고, 이에 합당하게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의

미에서 영의 나라의 문을 열어 준다. 그러나 영의 나라는 자신의 성장을 목적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를 구한 존재들의 진정한 고향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단지 일시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영의 나라에서 시작이 된다. 영의 나라는 세상의 묶임이 더 이상 혼을 누르지 않고, 이 땅의 삶의 어두움과 자유가 없음을 빛과 자유가 대체해주는 나라이다.

영의 나라의 거주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의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일은 사람들이 빛이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영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이 영화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자신 안의 영과 접촉을 구해야만 한다. 혼은 자신의 능력으로 접촉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의 존재가 영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혼에게 능력을 주면서, 혼에게 양식인 영의 은사를 제공하면서, 혼을 돕는다. 이를 통해 혼이 성장하고, 항상 더욱 자신의 외부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하나가 된다. 혼이 영의 은사를 통해 조연 받은 모든 것을 따르고, 조연을 받은 대로 살면서, 그러므로 자신을 영의 은사에 합당하게 형성 시키면서,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사람은 이 땅의 과정을 가야만 하고, 이런 길 외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사람들에게 영의 은사로 제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 외에, 이 땅에서 성장하게 하는 다른 수단이 없다. 말씀은 혼의 성장을 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들의 사랑으로 전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눠 줄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개자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시도하고, 하나님께 중개자로 자신들을 제공하는 영의 나라의 존재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어, 이런 영의 존재들을 통해 자신의 신적인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한다. 다시 말해 능력과 빛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빛이 제공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의 나라로부터 영의 선물을 받고, 그들에게 이 땅의 재물은 의미를 잃는다.

그들이 영의 선물을 받는다면, 그들은 이 땅의 나라를 피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성장하고, 영적인 내용을 이웃 사람들이 갈망한다면, 그들에게 영적인 내용을 전해주면서 이웃 사람들의 혼의 성장을 돕는다. 사람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려고 자원할수록, 영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항상 더욱 확장된다. 그들의 영적인 부유함이 증가해 나가는 정도로, 그들은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더욱 경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절대로 영적인 제물과 세상적인 재물을 동시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나라를 위할지 또는 이 땅의 세상을 위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은 또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미음이 전혀 사라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이제 진리를 받아드릴 지 또는 거부할 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진리와 거짓을 동시에 거부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직접 영향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변형된 믿음 가르침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다. 비록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올바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가르침과 올바른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세상이 영적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역사가 실재가 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게시해주는 일이 필요하고, 이런 게시를 통해 사람들이 영의 나라를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게시를 사람들에게 주는 일이 필요하다.

게시를 통해 그들에게 설명이 주어진다. 이런 설명이 또한 세상에 함께 존재하고 분별해야만 하는 오류와 진리를 분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게시해주는 일이 영의 나라가 실재한다는 증거이다. 나 자신이 믿기를 원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돌본다. 내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선한 의지와 단지적은 깨달음이 있는 경우 쉽게 영접할 수 있다.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제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대로 행하면, 그들은 또한 깨닫게 될 것이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지 깨달음의 희미한 빛이라도 있다면, 영의 나라가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게 단다. 사람의 깨달음이 증가할수록 영의 나라가 점점 더 현실이 된다.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를 게시하고, 이 땅의 나라와 연결을 이루고,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을 이룬다. 이런 사람은 이제 분명히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세력들과 접촉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재자로서 나를 섬긴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영의 나라가 아직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재자는 그들에게 증거를 줄 수 있고, 그들이 증거를 요구하면, 중재자는 그의 출처가 영의 나라이고 나 자신인 영적인 결과를 이웃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로부터 게시를 받는다. 그들이 이제 믿는 내용이 그들에게 확신이 되고, 그들은 이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를 알고, 모든 믿음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연관관계를 알고, 이제 자신이 확신하게 된 것을 생명력이 있게 대변한다. 사람이 한번 나를 모든 진리의 출처로 깨달으면, 그들은 또한 나를 위해 말하고,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영의 나라에서 온 지식을 전하려고 할 것이다. 영의 나라에서 온 지식은 세상 지식보다 더 실제적인 지식이다. 한번 빛 안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빛을 잃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빛으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광선을 보내기 위해 돌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 지식을 진리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혼이란 무엇인가?

모든 혼은 원래의 영이다.

B.D. No. 8008b

1961년 10월 2일

한 때 나로부터 나온 모든 존재들은 내 사랑으로 생성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발산된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원래 요소가 나와 같다. 그들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분해가 되었다. 한때 발산된 능력이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형되었다.

왜냐면 영원으로부터 원래의 법칙대로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분해가 되었던 입자들은 다시 모이게 된다. 한때 타락했던 원래 영들은 그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갈 때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후에 영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과정을 갈 때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모인 영적인 것이 혼으로써 인간의 걸형체가 살아 있게 한다. 그러므로 혼 자신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이다. 혼은 한때 모든 총명한 빛을 가지고 나로부터 나왔고 자유의지로 타락했던, 첫 번째로 타락했던 빛의 영인 내 대적자가 깊은 곳으로 함께 데리고 갔던,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이다. 원래 창조되었던 영들의 무리는 끝 없이 많았다. 나에게 남았던 존재의 숫자도 측량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같다.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사랑의 힘이다. 이제 한 빛의 영이 천사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면, 그는 다른 모든 타락한 영들과 같은 형편에 처한다. 육체는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또는 적게 성숙한 영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육신의 형체를 그는 입는다. 육체는 실제 더 순수할 수 있고 나에게 적게 저항하는 요소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육체는 항상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육체 안에 거하는 혼의 이 땅의 과정에서 어려운 의지의 시험과 검사를 거치게 한다. 왜냐면 저항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빛의 혼은 육체 안에서 혼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방식으로 육체를 사용하는 내 대적자가 항상 주는 싸움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의 혼도 강한 시험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면 세상의 육체는 내 대적자의 영역에 있고 육체는 한때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빛의 혼을 쓰러뜨리기 위해 특별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혼들의 특별히 강한 사랑의 의지가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능력의 제공을 보장한다. 왜냐면 그들은 나와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이 연결이 강력하게 나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의 갈망이 대적자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한 무기이다.

너희는 이제 타락하지 않은 영인 빛의 영이 이 땅의 과정을 가기 위해 다른 타락한 영을 배정받는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타락했던지 타락하지 안 했던 간에 모든 혼은 원래의 영이다.

타락한 원래의 영은 분해가 되어 셀 수 없이 많은 입자가 되어 그가 다시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이제 혼으로써 인간의 겉형체를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성장 과정을 간다.

타락하지 않은 영은 분해가 될 필요가 없고 저세상에서 높은 빛의 정도에 도달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타락하지 않은 영은 위로부터 온 혼으로써 인간의 겉형체를 입게 된다.

이런 혼들은 직접 육신을 입게 된다. 한때 나로부터 발산 된 능력이 생명의 생기로 인간의 겉형체로 흘러 들어 가고 형체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창조 된 것은 한때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내 의지에 의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 절대로 소멸될 수 없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나 나는 이 능력을 변형시킬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내 사랑과 지혜에 기초한 목적을 추구하면, 나는 이 존재를 분해해서 다른 창조물이 생성되게 할 수 있다. 나는 만약에 내 사랑과 지혜가 이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들이 인간의 겉형체를 입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내 목적을 본다면, 이 이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들이 인간의 겉형체를 입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실제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혼들은 원래의 영이었다. 내 끝없는 사랑이 이런 영에게 이 땅에서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도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멘

혼에 관한 추가 설명.

B.D. No. 8012

1961년 10월 5일

너희가 오류 가운데 거하지 않게 "혼"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주변에서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한때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존재이고 이 존재가 한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사랑의 힘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안했을 때 분해가 된 영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일을 행해야만 한다. 한때 존재로 발산되어 나온 사랑의 힘을 내가 섬기는 일을 하는 창조의 작품들로 변형시켰다.

그러므로 너의 주변의 창조물은 근본적으로 나에 의해 자립적인 존재로써 발산되어 나온 능력이다. 이제 영의 능력이 물질이 되어 아주 단단할 지라도 모두가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내 뜻대로 내 사랑과 지혜에 합당하게 단지 형체를 가지게 된 빛과 사랑의 불씨들이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것은 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한때 발산 된 내 능력은 거절할 수 없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너희들 주변에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성장 정도에 있는 것이다.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써 자신의 성품을 전적으로 반대가 되었고 이제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정화과정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다시 자신의 기쁨을 위해 빛과 능력으로 자유한 가운데 역사하는 자립적인 존재가 되어 하는 성장을 영적인 존재들이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과 목표이기 때문이다.

분해가 된 원래의 혼의 모든 입자들이 언젠가는 다시 모이게 되고 이 혼은 인간의 형체 안에서 자유의지 가운데 마지막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된다. 이 혼은 다시 말해 나로부터 한때 흘러 나간 사랑의 힘이다. 그러나 모든 그의 입자들은 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지라도 이런 입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왜냐면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이 비록 이것들이 내 의지에 의해서 물질로 굳어졌을 지라도 영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혼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면 실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혼이 육신을 입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혼이라고 말할 수 가 없다. 왜냐면 그는 루시퍼의 나라로 갔었고 그의 생각과 의지가 루시퍼와 같은 방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으로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지막 완성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그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면, 빛나는 빛의 영으로 저세상에 들어 갈수 있는 이 땅의 과정을 통해 모든 영적이지 못한 영향으로부터 남김 없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일시적이지 않으며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한다. 반면에 모든 눈이 볼 수 있는 겉형체인 물질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나 내 의지대로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단지 분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창조물은 마찬가지로 먼저 영적인 존재이고 단지 분해가 되어 창조물의 과정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타락한 원래의 영이 한 사람의 혼으로써 육체 안에 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혼은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혼은 단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성장 정도가 한때 영의 나라에서 그들이 사람들이나 또는 성숙하지 못한 채로 이 땅을 떠난 혼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단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창조된 존재를 깨닫고 교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혼들을 볼 수 있게 한다.

혼은 물질과 같이 볼 수 있는 입자로 된 형체가 아니다. 이는 영적인 형체이다. 이는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으로 죽은 형체인 인간의 육체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육체는 실제적인 생명인 혼이 없으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할 수 없지만 혼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인간의 내장기관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만 항상 혼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작동이 되게 모든 역할을 정하는 혼에 의해서 작동되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전 삶의 책임을 단지 혼이 지고 절대로 육체가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내 일부분인 이제 자신의 재촉에 복종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항상 내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그럴지라도 절대로 혼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 영의 불씨를 넣어 주지 않았으면, 혼은 항상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였을 것이다. 혼은 혼의 갈망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갈망을 따를 것인지 전적으로 자유한 가운데 있다. 이것이 실제로 혼이 완성을 이루어서 영의 나라로 가기 위해 합격을 해야 할 이 땅의 삶의 시험이다.

너희 사람들은 바로 타락한 원래의 영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는 생각에 그러나 이 원래의 영이 루시퍼적인 것이 뭉임을 받은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쳤고 육신을 입는 초기 단계에는 그가 루시퍼의 영역에 거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지 못한 영이라는 생각에 친숙해져야 한다.

인간의 곁형체도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영적인 것이다. 왜냐면 마지막 완성은 먼저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큰 원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낸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혼은 사명을 위해 어두움의 나라인 이 땅에 임한 빛의 영이었다. 빛의 혼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상태를 가진 육신의 곁형체인 육체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 형체는 이전에 빛의 혼을 위해 준비되어 졌다. 왜냐면 이 형체는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순수한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육체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왜냐면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야만 하는 자신을 영화 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장 순수한 빛의 혼인 예수의 혼은 어두운 환경 가운데 거했다. 그는 루시퍼의 나라로 내려왔고 이제 루시퍼를 통한 모든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혼은 타락한 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혼은 깊은 곳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혼은 루시퍼의 명을 받고 강하게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 예수의 혼은 모든 충만한 빛이었다. 그렇지라도 혼이 깊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이 소동을 일으키게 할 자신의 빛을 남겨 두었다.

그러므로 빛의 영이 예수를 단지 제한 된 만큼 채웠다. 그는 자기의 사랑의 빛을 비추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 그는 사랑을 잃지 않았다. 이 사랑이 그를 영원한 그의 아버지인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게 했다. 즉 예수의 혼은 내 영으로부터 온 영이었다. 마찬가지로 혼은 나로부터 발산 된 사랑의 빛이었다. 혼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의 구속사역을 막기를 원하는 예수의 혼 자신을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려는 내 대적자가 역사를 했다.

거대한 사랑의 빛의 능력으로 예수는 놀이하듯이 그의 모든 공격에 저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일에 의문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절대로 인간으로써 이웃에게. 자신들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들도 살아야 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단지 유일하게 신적인 능력이 완성을 이루게 되었고 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빛의 혼은 의식적으로 내 대적자에게 모든 공격할 면을 제공하면서 그와의 싸움에 임했다. 그는 의식하는 가운데 싸움에 임했다. 동시에 그는 악한 영들이 자신을 소유하려고 할 때 물리치지 않았다. 그는 악한 영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이겼다. 다시 말해 그는 악한 영들을 잠잠하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구속을 주었다.

왜냐면 그의 사랑은 아주 컸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써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사랑이 불바다와 같이 성장했다. 그는 영원한 사랑으로써 나 자신을 자신 안에 영접했다. 그는 대적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악한 영들의 모든 요구를 아주 큰 인내와 긍휼로 이런 구속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돕기 위해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혼과 같은 상태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 모든 공격을 극복했다.

사랑이 아직 영화 되지 못한 육체의 입자들이 자신의 혼과 같아지는 혼과 육체가 최고로 충만한 빛 가운데 빛나는 되는 혼이 영원한 사랑의 빛인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완성했다. 만약에 최고의 빛의 영인 천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자유의지로 창조할 수 있는 자유의지 가운데 최고로 완성된 영이 되기 위해 깊은 곳을 향한 길을 가려고 하면, 이런 같은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항상 영은 자신의 빛과 능력의 충만함에 제한을 한다. 왜냐하면 이런 충만함이 아직 순수한 영적인 육체가 아닌 인간의 육체를 폭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의 영이 인간의 육체의 형체를 입지만 그럴지라도 이는 영의 육체이다. 이런 영적으로 제한이 가해진 형체가 죽은 육체를 비로소 생명이 있게 하는 혼이다.

이 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혼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혼은 다시 자유로운 빛과 능력이 충만한 영이다. 그러나 이 영이 한때 인간의 혼으로써 깊은 곳을 가는 길을 갔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영은 이 땅의 삶 동안에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 비록 그가 내 대적자로부터 가장 큰 시험을 받을 지라도 그는 절대로 나와 연결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의 사랑의 힘이 그를 승리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내 대적자가 원래 창조된 큰 무리의 영들을 타락시킬 때 성공하지 못한 것을 그는 이제도 성공시키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빛의 영이 이 땅의 삶은 그가 영원히 자신의 아버지인 나와 하나가 되는 이제 제한이 없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는 아주 분명하게 전적으로 큰 의지의 시험을 마칠 때까지 특별하게 어려울 것이다.

아멘

모든 혼은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한다.

B.D. No. 7146

1958년 6월 17일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너희의 전적인 의지로 마지막 육신을 입는 과정에 들어 섰음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땅의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 육신을 입기 전에 알고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지식이 그가 육신을 입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고 육신을 입는 것을 통해 길고 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로 깨닫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하는 일을 늦추려 하지 않았다. 그의 자유의지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익한 좋은 기회에 대한 기억은 지워져야만 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의 이런 저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그에게 항상 그가 전에 그의 전제 삶의 상황과 운명적인 흐름을 보고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는 이 땅의 그런 삶을 살게 강요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주장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에는 위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성공도 이에 합당함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어려움이 없는 화려한 운명으로 바뀌는 이 고난의 과정이 그들에게 마지막 짧은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항상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원할지라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만약에 그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이를 위한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는 그의 자유의지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함받지 않는다.

이 땅의 삶을 통한 상급은 너무 커서 이를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충분하지 않다. 인간에게 즉 혼에게 축복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질 수 없다. 그는 스스로 복된 것을 얻어야만 한다. 그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을 자유를 빛을 그리고 능력을 얻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그 스스로 승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는 어떤 생활 형편 가운데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그가 얻는 상급도 그만큼 크다.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단지 생각하면, 즉 너희가 그러나 진실로 영적인 목표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에서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가 드리는 노력을 생각하면, 너희는 오직 너희를 영적인 싸움을 위해 드리려는 너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이 달려있는 이 일에 같은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너희가 한때 이 땅의 삶을 자원해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확신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너희에게 항상 능력을 주고 지원해주고 너희의 어려운 삶에 환경을 극복하게 도울 준비가 된 한 분이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떤 사람의 운명도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성장 정도와 그를 복되게 하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경우, 그는 항상 자신의 형편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 이로써 그가 인생을 통해 그의 믿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할 자의 손에 다시 빠지면, 그의 삶은 헛된 삶이 될 것이다.

아멘

혼. 사람 안의 영의 불씨.

B.D. No. 1618

1940년 9월 18일

사람의 혼은 셀 수 없이 많은 혼의 입자들이 모인 것이다. 혼의 입자는 영적인 능력이 모이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이런 모든 셀 수 없는 영의 입자들은 이 전에 어느 곳에선가 육신을 입고 있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입자가 위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혼의 입자들과 연합이 되기 위해 한 형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은, 혼의 각각의 입자들이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쳤고, 동시에 혼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입을 정도로 성장했다.

혼은 항상 혼을 둘러싸고 있는 걸 형체와 같은 형체를 갖는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아주 매혹적이고, 다양한 그림을 보게 되 것이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은 그의 구성 뿐만 아니라, 그의 목적의 합당성을 묘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의 구성을 설명하는 일은 단지 사람의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한 셀 수 없게 많은 기적의 작품들이 인간의 육체 안에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혼으로 이해하는 혼은 모든 창조의 작품의 축소형이다. 혼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고, 이 모든 창조물을 포함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영화시키는 사명을 받았다. 혼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다. 모든 성장 단계에 있는 혼의 근원적인 입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이제 사람 안에 육신을 입은 혼에게 하나님의 영의 불씨를 넣어 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사람 안에 신적인 것을 넣어 주고, 혼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신적인 것을 택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것을 택하는 과제를 혼에게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인,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혼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의지가 있다면,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혼의 영화가 시작이 되고, 사람의 혼의 내면이 빛이 된다.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유혹하는 인간의 육체에 붙어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갈망에 혼이 굴복하지 않고 극복한다면, 혼이 육체가 육체로서 혼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저항한다면, 혼이 자신 안의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것에 자원하여 순복한다면,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혼이 한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이다. 혼은 의식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자신 안의 영적인 요소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 안에서 영적인 요소와 자신 외의 영적인 존재와 연합이 되기 위해, 사랑의 비추임과 능력을 영접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추구한다. 그럴지라도 육체의 요구가 지배적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불씨는 가장 깊게 형체에 둘러싸인 가운데 사람 안에서 잠을 자고, 빛을 발산할 수 없고, 혼은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된다.

혼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가장 작은 영적인 성공도 하지 못하면서 산다. 혼 안의 영적인 존재는 사랑이 없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혼에게 이 땅의 과정은 높은 곳으로 성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정지하거나 또는 퇴보하는 과정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의 불씨는 주의를 받지 못하고 머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존재에게 흘러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혼이 이 땅에서 스스로 결정한 빛이 없는 상태를 혼은 영원으로 가지고 가고, 이 땅에서 활용하지 않은 시간을 끝없는 고통과 후회 가운데 생각하고, 혼은 이제 자신의 상태를 빛이 충만하게 바꾸기 위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아멘

사라지는 지식과 사라지지 않은 지식.

B.D. No. 1500

1940년 7월 2일

세상적인 모든 것의 무상함과 쇠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아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사람에게 인간의 혼이 불멸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혼의 불멸을 전제로 하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거나 부정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혼의 불멸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이 땅의 삶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영적인 삶이 인간에게 비로소 사라지지 않는 성공을 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결과이다. 영적인 삶이 단지 이 땅에서 수반되는 삶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삶이 유일하게 중요하다.

이 땅의 삶을 실제 영적인 존재와 아무런 연결이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영원을 위해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이 한번 혼의 불멸에 관심을 돌리고, 이런 경우를 고려하자마자, 그는 이미 의식적으로 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그의 노력은 영적인 보물을 모으는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모든 세상 재물을 무가치한 것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세상 재물도 영구적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소멸돼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불멸이라고 깨닫는 것을 고수한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불멸이라고 깨닫는 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다.

영적인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것을 구하고 또한 찾는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지원한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이 땅의 삶의 실제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영원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 항상 사람 안에 혼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해진다. 그는 이제 실제 이 땅의 삶과 완전히 분리가 된 그의 두번째의 삶을 산다. 그는 영적인 연결을 이루고, 자신의 생각을 영의 영역인, 위로 향하게 하고, 영의 존재들과 소통하고, 영의 존재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고, 영의 존재들이 자신을 가르치도록 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든 일을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적으로 쇠하지 않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만큼 이 땅의 삶을, 다시 말해, 쇠하는 모든 것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이 땅보다 영의 영역에 훨씬 더 자주 거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고,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의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먼저 줘야만 한다. 동시에 그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해줘야만 한다. 이로써 그가 이제 어떤 삶이 더 매력적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는 세상의 보물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는 이 땅의 쾌락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영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 땅의 쾌락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한다. 그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단지 쇠하지 않는 혼만을 돌봐야만 하고, 둘 다 동시에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쇠하지 않는 재물도 얻고, 동시에 세상 재물을 얻을 수 없다. 하나를 받기위해 다른 것을 희생해야만 한다.

사람은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일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의지는 단지 이 땅에서 갈망할 만한 것이나, 혼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향할 수 있다. 사람은 헛된 재물과 헛되지 않는 재물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1940년 7월 2일) 그의 영이 쇠하지 않는 재물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쇠하지 않는 재물을 위해 추구하는 일이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로 가게 한다는 것이 그에게 이제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헛된 재물을 무시하고, 단지 영적인 재물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의 혼의 상태는 훨씬 더 자유롭게 된다. 왜냐하면 물질을, 즉 이 땅에서 갈망할 만한 것들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극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쇠하지 않는 영적인 재물을 향한 갈망을 통해 혼의 사슬이 풀렸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가져다준다. 그는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이 되고, 동시에 영적 존재와 연결을 추구한다. 이런 영적인 존재와의 결합이 그에게 그가 그의 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는 깨달음의 형태로 지혜와 빛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진리로 인도를 받고, 혼은 이제 모든 영적인 재물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혼이 영적인 재물의 증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간 혼은 돌이킬 수 없게 정상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의 목표가 가능한 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헛된 것을 극복함으로써 도달하는,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재물의 증가는 형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혼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고, 진정으로 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간의 혼은 영원히 산다.

아멘

세상 것들의 헛됨. 자연재해와 불행한 사건들.

B.D. No. 7219

1958년 12월 1일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돌보게 육체의 죽음 후에 너희의 생명 한가지 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을 뒤로하고 너희가 종말을 대비하게 위로부터 너희에게 계속하여 경고들이 주어진다. 세상적인 것의 헛됨과 너희 자신의 이 땅의 육체에 해당이 되는 것의 헛됨은 어떠한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를 아주 적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의 재물을 끈질기게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이처럼 끈기 있게 너희 혼을 위해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너희는 언젠가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세상적인 것이 헛된 것임을 보여줘야만 하는 일이 죽음을 통한 갑작스러운 종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하는 일이 이로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로써 너희는 많은 자연재해와 운명적인 사건에 대한 해명을 얻는다. 왜냐면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단지 세상 기쁨이나 또는 내일이라도 당장 없어질 수 있는 세상 재물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얼마나 빠르게 죽음의 날이 다가올 수 있는지 그러면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위험 가운데 아주 금홀히 여길 만한 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자신의 잘못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왜냐면 이 땅에서 혼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단지 육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만 향해 있었고 그러나 사람이 즉 혼 자신이 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나"는 저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 속에 빠진다.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어 지는 경고들과 권면들은 주의를 받지 못한다. 이 것이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것의 헛됨을 증명해줘야 할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로써 다가오는 고통이 층만한 일들을 자연의 권세를 통해 재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일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일은 항상 단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단지 이 땅만이라는 꿈꾸는 상태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꿈꾸는 상태가 사람들이 증가 된 열심으로 그들이 잃었던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쇠하지 않는 영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재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종말 전에 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또 다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자유의지를 보장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왜냐면 가장 작은 빛이라도 밝혀 줄 수 없는 사람은 종말의 때까지 사람이 자신을 바꿀 희망이 적게 될 것이다. 그의 운명은 깊은 어두움이 될 것이다. 그의 운명은 그가 이 땅에서 갈망할 만한 것으로 여기던, 그러므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그의 거처가 될 물질 안에 새롭게 파문을 받을 것이다. 종말의 때까지 경고와 권면을 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심장으로 영접하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가 스스로 결정하고 심판의 날에 그의 운명이 이에 합당할 것이다.

아멘

영원한 혼.

B.D. No. 2860

1943년 8월 25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영적인 힘으로, 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볼 수 있는 피조물들은 지속적인 변화 아래 놓여 있다. 이 피조물들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지라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며, 자체가 변화되어 간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안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형체를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질을 분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고, 절대로 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기까지, 계속 성장하게 한다.

인간도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이지만, 단지 마지막 형체인 육신이 일시적이고, 그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은 계속 존재하고, 육신이 없는 존재로써 영원의 세계로 들어 간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혼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혼은 본질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 성장을 위해 육신의 겉 형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육신이 사망한 후에, 혼은 어떤 겉 형체도 없이 계속 살아 있고, 이 땅에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고, 땅의 요소가 전혀 없는 영의 존재들만이 혼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한 것의 형체와 그의 상태는 아주 다양하다. 비록 창조물이 영원히 소멸될 수 없지만, 창조물의 다양함에 따라 많이 또는 적게 볼 수 있다.

모든 창조된 것이 형체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눈은 이런 형체만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단지 높은 성장단계에 있는 존재가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의 영원성을 의심해왔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생각해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그러므로 비록 이 땅의 겉 형체를 잃어버릴 지라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자신 안의 영적인 존재를 깨달을 때, 외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물질을 성장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겉 형체로 여긴다. 그러면 그는 영적인 존재에게 끝이 없음과, 외적인 형체는 단지 하나님의 의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즉 영적인 존재가 이 땅 밖의, 물질 밖의, 끝없는 영원한 삶을 위해 이 겉 형체를 자유롭게 해줄 때 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의 삶을 하나의 거치는 중간 과정으로 깨닫는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영적인 존재와 혼이 그들의 마지막 겉 형체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전혀 겉형체가 없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필요한 성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부족했던 자유와 힘을 느낀다. 이 영역에서 그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고,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혼의 불멸. 은혜의 공급.

B.D. No. 1034

1939년 8월 1일

오 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가 혼의 불멸을 의심하면, 너희는 가장 큰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땅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가정하에 너희는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몸에 제공되는 것에 만족하고, 저세상을 위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을 돌보지 하지 않고, 단지 몸에 유익한 것으로 만족한다. 너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너희는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삶을 끝내지만, 그러나 혼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혼은 너희가 정한 이 땅의 너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새로운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자신이 동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감각을 사용하고,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또한 느끼게 될 것이

다. 혼이 공의로운 속죄나 공의로운 보상을 받아드려야만 하고, 이를 피할 수 없는 일이 모든 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혼의 계속되는 삶을 고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단지 이 땅의 의무를 완수하는 일로 향한다. 이런 일이 그가 영원 가운데 영적인 업적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그를 심하게 퇴보된 상태에 있게 한다.

활용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의 기회보다 혼을 짓누르게 하는 일은 없다. 사람에게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영원"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혼이 이 땅에서 실제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저세상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일할 때, 비로소 혼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또는 혼이 이제 육체 안에 거할 때 몇 배나 더 쉽게 도달했을 일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외친다.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라. 모든 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착각 속에서 살지 말고, 그때 비로소 실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시험 기간을 통과해야만 하고, 시험 후에 실제의 삶이 시작되고, 이 삶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을 알라. 왜냐하면 혼이 이 땅의 삶을 지나 가게 하고 이제 저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영적 보물이 없이 가난함을 깨달아야만 하는 일은 혼에게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아직 너희의 힘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삶을 활용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 단지 그런 일이 너희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너희를 위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에 대한 작업을 위해 혼의 불멸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B.D. No. 2544

1942년 11월 10일

사 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절대로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한다. 단지 이런 깨달음이 비로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한다. 결과적으로, 혼이 죽음 후에도 계속 산다는 믿음이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하고, 비록 사람에게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에게 혼이 불멸한 이유를 설명해줘야만 한다. 그가 불멸하다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 그에게 제공돼야만 한다. 이로써 그가 증거 없이도 쉽게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이 땅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살게 된다.

단지 이런 생각이 이제 비로소 그가 세상의 재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세상의 재물이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관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들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하는 일은 저세상의 삶과 관련된 일이 된다.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 후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영을 위로 보낸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을 마친 혼이 머무르는 지역으로 보낸다. 그는 이제 이런 영역에서 생각을 통해 설명을 받고, 사람이 이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이 땅의 여행자로 여기고, 자신의 삶의 여정이 곧 끝날 것으로 여기고, 이런 짧은 이 땅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려면, 불멸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믿음이 또한 사람이 순전히 세상적으로 삶을 사는 일을 막는다. 그러나 혼이 계속 산다는 것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열심히 생각하는 일을 통해 가장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마치 모든 영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로써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믿음이 강요를 받지 않게 된다.

아멘

혼의 지속적인 삶을 믿으라.

B.D. No. 3299

1944년 10월 19일

죽 신의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확신이 사람들이 이 땅의 고통을 훨씬 더 쉽게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단지 영의 나라의 실제의 축복된 삶에 도달하는 예비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이 최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기쁨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기쁨이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

다. 죽음 후의 혼의 삶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이고, 죽음의 두려움이 또한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단지 영적 삶을 살게 되는 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혼이 계속 존재하는 일을 부인하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사후의 삶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을 활용하고, 이 땅에서 단지 오래 잘 사는 일을 추구한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소멸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통해 혼이 계속 산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이웃사람이 그에게 전해줄 수 없고, 사람은 단지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반드시 계속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가 결함이 있는 작품을 만든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창조물로서 완성된 형태를 가진 창조물이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위로 성장하는 일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런 성장은 당연히 사람이 됨으로 멈출 수 없고 영의 나라에서 계속된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의 삶이 끝남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난다는 생각보다 더 즐겁게 죽음 후에 삶이 계속 된다는 생각을 기쁨으로 받아드리는 긍정적인 느낌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이런 성장을 증명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하고, 그럴지라도 그는 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이제 그가 의심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살게 한다. 왜냐면 죽음 후에 계속 산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이 땅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혼이 높이 성장하는 일을 이 땅의 삶의 목표로 여기고, 죽음 후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인 혼이 성장하게 만드는 일을 목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단지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그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몸과 연관된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혼의 삶을 위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실제 이 땅의 밖의 영역에 있지만, 이런 일이 유일하게 이 땅의 목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혼이 구하는 일임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이 항상 우세하여 혼을 이런 영역에서 끌어내린다. 계속 산다는 믿음이 사람 안에서 깨어나, 혼이 육체의 욕망에 저항하기 전에는 육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가올 때의 고난은 계속되는 삶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의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시간적인 끝이 온 것으로 여기고, 이를 아는 일이 그들 안에 그들을 마비시키는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왜냐면 믿음이 항상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은 절대로 짓누르지 않고, 일으켜 세울 것이고, 믿음이 의지의 연약함이 아니라 의지의 강함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믿음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경시하고 놀리려고 시도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것이다.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 왜냐면 사람이 불멸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또한 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이 땅의 삶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혼이 불멸하는 것을 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랑이 지배적이고, 자기 사랑은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믿음을 항상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자신의 결함이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계속 산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랑을 계속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하고, 그가 이 땅의 삶을 지나치는 과정으로 깨닫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상태로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의식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한 추구를 하게 해야 한다.

아멘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B.D. No. 8059

1961년 12월 9일

사 람들이 단지 그들의 실제적인 자기인 그들의 혼이 불멸한 것을 믿기를 원하면, 혼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맞이할 운명을 준비함을 믿기 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처할 운명에 무관심했던 것을 언젠가는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전해진 경고와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미래의 운명에 관해 무관심 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빠지게 위협하는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단지 죽은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그들이 비록 이 땅의 육체를 벗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소멸될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은 마치 내일이 다가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다가올 때를 향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를 그들에게 증명해줄 수 없다. 그들은 이를 단지 믿을 수 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다면, 그들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이 혼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로부터 생각을 통해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영적인 방향으로 향한 생각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런 질문하는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강요를 통해 이런 영적인 생각으로 인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게 하기 위해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질문은 단지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종종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는 세상적인 소유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를 잃음으로 인해 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낄 수 있는 손실을 봐야만 한다. 이런 손해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영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심각한 운명적인 일이 그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

사람에게 혼이 계속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비록 그가 교회를 통해 교육을 받았을 지라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를 의심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적인 확신이 부족하다. 이것이 영의 나라의 삶을 위해 살아야 할 그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무관심 하게 만든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혼에게는 종말을 의미하지 않지만 확실한 종말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다. 항상 또 다시 그에게 대화를 통해 또는 기록의 형태를 통해 그가 자유의지로 영접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다.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목적인지 질문하는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면 그는 죽음 후의 계속 산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는 언젠가 다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자신 안에 항상 강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는 단지 아주 작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영과 몸은 혼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B.D. No. 2532

1942년 11월 1일

영과 몸은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은 혼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혼을 형성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형성하려고 한다. 몸은 세상에 따라 혼을 형성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몸에게 세상 자체가 유일하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갈망을 혼에게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은 영의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혼을 영의 나라에 합당하게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영은 혼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육체의 욕망과는 반대이다.

몸은 물질을 추구하지만, 반면에 영은 물질을 완전하게 벗어난다. 영의 의지와 추구하는 일은 단지 영원한 신성에게 향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 영원히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려는 단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은 또한 혼이 자신의 갈망에 합류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영은 혼이 자신과 같은 의지를 갖게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면에서 혼을 자신에게 끌어들여, 혼을 몸의 소원의 성취 대상인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와 반대되는 물질과 세상을 극복하게 한다.

영이 영의 나라를 위해 혼을 얻는 일에 성공하면, 혼이 이 땅의 삶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몸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지만, 혼의 갈망에 동참한다. 그러므로 혼이 영과 하나가 되기 원하면, 몸의 구성원인 영적인 입자들이 다른 형체를 입을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 자원하여 따른다. 영의 입자들은 형체 안에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훨씬 더 빠르게 이룬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저항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이 몸을 극복했고, 몸은 패배를 선언한 것이다.

몸과 혼이 자신들을 영에게 맡긴다. 그러므로 영이 혼을 완전히 차지하고, 혼이 영과 연합한다. 이제 모든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단지 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옳아야 만한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영이 항상 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행하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행복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추구하는 상태가 혼이 추구해야 하는 상태이다.

아멘

너희가 너희의 혼을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세상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혼이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을 때,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의 세계로 향하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너희가 성장하는 일이 또한 혼이 이 땅의 삶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사람이 물질로부터 더 많이 분리가 될수록,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없앨수록, 혼이 더 많이 더 많이 영화가 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는 신체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순종해야만 하고, 이 땅의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묶여 있고, 하나님이 그를 영의 나라로 부를 때까지 이 땅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세상적인 삶과 함께 두번째 삶을 살 수 있다. 혼의 삶은 육체의 삶에 전혀 참여할 필요가 없고 혼은 육체와 같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혼은 육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육체의 갈망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혼이 영의 나라로 향할 수 있다. 그러면 육체는 실제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더 이상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곧 혼의 갈망에 동참하고, 이 땅의 의무가 그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이 이제 모든 물질적인 재물을 무시하고, 영의 나라를 자신의 노력의 목표로 설정하는 정도에 이르면, 그는 또한 세상편에서 주는 강한 유혹에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세상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그를 세상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때때로 단지 쉬운 싸움을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가 항상 극복하게 될 단지 유혹들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추구하는 영의 나라의 세력들이 그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고, 영의 나라의 세력들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그를 이끌고, 끊임없이 그의 혼에게 영향을 미쳐, 혼이 저항할 힘을 자신 안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물질세계에 대한 포기가 클수록 영의 나라에서 전해지는 힘이 더 강해진다. 이런 힘의 유입은 혼뿐만 아니라 육체에게도 유익하다. 왜냐면 육체가 이제 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과제는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인간은 또한 이 땅의 활동을 통해 혼의 성숙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세상의 목표를 무시하고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단지 이웃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로써 항상 더욱 영적의 나라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실제 사명을 성취하고, 물질을 극복하고 자신을 영화시킨다. 혼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육체가 혼의 갈망을 더 따르게 한다. 혼은 육체를 영의 나라로 끌어 들이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어진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한다. 혼은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로써 혼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

아멘

혼 이 사랑을 행함으로 자신 안의 영과 연결을 이루면, 혼은 자신 안에서 성장하려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 이제 혼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혼을 혼의 고향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정도로 혼은 이 땅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즉 혼의 의지와 생각이 더 이상 육체와 육체의 욕망으로 향하지 않고, 영적인 쪽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단계에 도달하면, 혼은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했고, 실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고, 이 땅의 과제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면 혼에게 영적인 지식이 없었고, 단지 세상적인 삶에 주의를 기울인 이 전의 상태로 다시 퇴보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혼은 이제 의식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일을 통해 영의 나라로부터 생각을 통해 전해지는 것에 자신을 열고, 그의 결과로 사랑을 행하면서, 영적 재물을 모은다. 왜냐하면 빛의 존재가 사람 안의 영의 불씨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그가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행할수록, 그는 자신 안에서 영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지식이 더 많아진다. 그가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는 그의 이웃 사람을 세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도울 수 있고, 세상의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도우면서, 섬기는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전에 영을 통해 받은 진리에 합당한 영적 지식을 이웃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면서 이웃 사람의 혼을 돌볼 수 있다..

그는 사라지지 않은 재물을 전해서, 다른 혼이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은 아주 유익하고, 혼이 그에게 영원히 감사해 하는 도움을 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돕게 하고, 이런 도움에 자신을 닫으면서 거절하지 않으면, 영적인 도움은 항상 생명을 깨우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한번 영적인 길을 택하면, 그는 절대로 혼자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자신의 이웃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추구가 사람이 자원하여 추구할 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혼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혼의 끊임없는 노력은 세상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혼은 언제 어디서나 영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갈망하면, 영의 나라에서 항상 다리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인간의 혼에게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인간 안의 영의 불씨는 항상 혼에게 영적인 재물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영의 불씨는 빛을 주는 세계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의 존재를 통해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준다. 왜냐하면 혼의 갈망과 혼의 생각과 의지가 혼이 받는 영적인 선물의 분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혼이 받은 영적인 선물을 이웃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웃 사람에게 전하면, 혼은 무제한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영의 나라를 얻는 일.

B.D. No. 5854

1954년 1월 15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온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단지 이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로써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권리를 얻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우선은 내 피조물이고, 아직 자녀권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소유해야 할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영의 나라이고, 내 나라는 내 사랑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고, 셀 수 없는 축복들이 제공되는 너희의 진정한 고향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런 내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권리를 얻어야만 하게 된 일은 너희가 한때 자발적으로 내 나라를 떠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 시험에서 합격하면, 너희에게 내 나라를 돌려줄 수 있다. 너희는 이런 의지의 시험을 이 땅에서 치러야만 하고, 모든 종류의 유혹 가운데, 너희가 극복하는 일이 너희의 과제인 나라 한가운데에서 치러야만 하고, 너희는 이 나라를 절대로 너희의 모든 소원과 추구하는 일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나라에 대한 너희의 권리를 다시 잃고, 아직 그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세상의 창조물들이 있는 세상의 권세자에 의해 오랫동안 속박을 받게 된다.

비록 세상의 권세자에게 이 땅의 창조물에 대한 권세가 없을지라도, 이 땅은 그의 세계이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걸 형체이고, 나는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자유롭게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언젠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일을 위해 추구해야 하고, 훈련장소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해 줄 내 나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숙한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 땅의 세상이 실제 너희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가 올바르게 행하기 원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준 분의 뜻을 성취시키기 원하면, 너희는 또한 내 나라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세상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비용이 들고, 내 나라는 단지 침노하는 일로 빼앗을 수 있고, 내 나라를 얻어야 하고,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 내 나라와 교환해야만 한다. 즉 세상에 속한 것을 희생해야만 하고, 훨씬 더 귀한 영적인 재물을 얻기 위해 혼이 자발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과 결별해야만 한다. 이런 영적인 재물이 내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보장하고, 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너무 큰 요구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기를 진지하게 원하면, 내가 너희를 돕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모두가 축복되기를 원하고, 단지 내 나라가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돕는다. 나는 너희가 자녀로서 너희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 축복된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돕는다.

아멘

사랑은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이다.

B.D. No. 5314

1952년 2월 10일

너희는 단지 사랑을 통해 나를 붙잡을 수 있고,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 심장의 문과 영의 나라의 문과 너희의 아버지 집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가 없으면, 모든 접근이 너희에게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숨겨져 있고, 내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이 영의 나라에서 창조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숨겨져 있다. 열쇠가 없으면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이 너희에게 숨겨져 있고, 너희에게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게 된다. 왜냐면 사랑이 없으면 어두움이 너희를 감싸기 때문이고,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에게 빛을 주고 이로써 너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심장 안으로 영접하고, 사랑의 삶을 살면, 너희는 말할 수 없게 권세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에 또한 힘이고,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면, 너희가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모든 충만한 빛과 힘을 약속한다. 너희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나와 연합하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 보답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의 유입을 통한 축복을 너희에게 약속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너희는 시험을 해보라. 모든 자기 사랑을 버리고, 너희 주변을 보라. 너희가 고난을 보는 곳에서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라. 육체나 혼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픈 사람들을 발견하는 곳에서 치유하려고 시도하라. 그들에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라. 그들이 양식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 너희가 너희의 소유를 처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너희의 소유를 처분하라.

그런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의 힘과 빛이 증가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던 이 땅의 고통을 극복할 것이고, 이전에는 너희에게 압제로 보이던 것이 너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서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확립하는 나와 연합의 축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가 희생한 것에 대해 너희에게 천 배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는 나를 깨닫고 너희를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으로 흐르는 사랑의 힘을 느끼고, 밝게 깨어난 영으로 듣고, 너희들에게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해보라. 내 말씀을 믿고,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얻고,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잘못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축복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단지 너희를 축복된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고 너희에게 단지 사랑을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안의 전혀 사랑이 없고, 너희를 존재하게 만든 영에 대해 싸워야만 한다. 그는 너희를 자기 사랑으로 이끌고, 너희 안의 하나님의 불씨를 꺼버리기를 원하고, 나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약화시켜서 너희 안에서 사랑의 힘을 체험할 수 없게 한다. 그에게 대해 싸우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너희 심장 안으로 영접하고, 이 말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운명은 나와 완전하게 연합하고 무한히 축복된 운명이 될 것이다.

아멘

진정한 고향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이 땅의 세상.

B.D. No. 6298

1955년 6월 29일

비록 너희 사람들은 너희를 향한 판단을 듣기를 원하지 않지만 세상을 연연해하는 일은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와의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과 이미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너희는 염려 없이 세상을 경시했을 것이고 물질적인 것과 영의 나라 밖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맘에 들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혼이 원수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켰다면, 너희 혼은 자신이 원래 초기에 거했던 영의 나라로 돌아 가기를 갈망할 것이고 물질적인 세상이 단지 자신에게 사슬을 씌우는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느낄 것이고 절대로 물질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무지의 결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이 너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전형이라고 믿는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육신 안에서 자유가 없고 부담을 가진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풍부한 힘을 가진 자유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해방시켰을 때 너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빛나는 빛을 알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세상의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든 자를 진지하게 외면하면, 이런 모든 욕망은 사라진다. 너희의 갈망은 이제 다른 목표로 향하고 혼은 세상이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기쁨을 요구한다. 혼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힘과 빛을 갈망하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모든 감각으로 영의 나라를 추구한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된 혼은 자신의 참된 본향이 갈망할만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혼은 스스로 헛된 모양으로 깨닫고 그러므로 자신이 경시하는 세상의 재물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이 세상을 갈망하고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그에게 속하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를 그로부터 자유롭게 할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고 너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교환하기 위해 그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기할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 비록 너희가 아직 이 땅에 거할지라도 영의 나라로 발걸음을 내딛어라. 자신이 동인이 되어 물질의 나라와 영의 나라를 바꾸기 원하는 일이 너희의 의지의 결정이다.

너희가 이일에 성공하면, 너희는 의지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킨 것이다. 너희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 이런 시도를 감행하고 인도받을 것이고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물질의 무상함을 너무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불멸하는 것을 위해 추구하는 일이 진실로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또 다시 그의 부름을 들려준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라. 세상을 포기하라. 이로써 세상이 절대로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주는 영의 나라를 다시 소유할 수 있게 하라.

아멘

세상을 극복하는 일.

B.D. No. 8490

1963년 5월 7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해 있다. 왜냐면 이 세상은 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물질을 갈망하는 모든 생각은 그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생각을 영접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빛의 존재는 너희를 영적인 일로 인도하려고 시도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재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재물을 헛된 것으로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쇠하지 않는 재물을 추구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물질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을 통과해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화 되어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것이 너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도움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세상의 물질이 헛된 것임을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주 너희 심장이 전적으로 연연해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내가 이를 통해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고통을 통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영원을 위해 가치가 없다는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비로소 물질적인 재물의 올바른 가치와 무가치를 깨달을 때 너희는 너희 심장에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너희는 너희에게 남아있고 너희가 저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 재물을 추구한다. 그러나 한 가지가 너희에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순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한다. 이 한가지는 육체의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믿음이다. 이 땅에 육신만이 단지 죽을 수 있다.

왜냐면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신을 생명력이 있게 하는 혼은 죽을 수 없다. 혼은 단지 너희의 물질적인 형체를 떠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저세상에 들어갈 때에 불쌍하게 되거나 또는 부유할 것이다. 너희 혼의 이런 운명을 너희 스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를 한다.

너희의 순전히 세상적인 자세가 혼에게 아주 극심한 가난한 상태를 주고 혼은 언젠가 쓰라리게 느끼고 만약 혼이 작은 희미한 깨달음이라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활용하지 않은 시간을 후회하며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반대로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물질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혼을 영적으로 돌본다면,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로 향하게 하면, 혼을 위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너희에게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너희는 가볍고 즐겁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물질이 너희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자원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더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너희가 세상과 세상의 물질 구하는 것을 극복하게 너희가 물질의 가치 없음을 깨닫게 너희 심장이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너희에게 쉽게 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너희가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것을 잊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조공을 너희가 대적자에게 바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돕기 위해 돌본다.

이 땅의 삶은 짧다. 그러나 모든 영원한 시간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쉽게 이런 짧은 이 땅에 삶 때문에 영원 가운데 너희의 영광스러운 삶을 버리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적인 물질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적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앎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왜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육체를 위해 얻은 것을 이것이 사람이든 또는 세상적인 물질이든 빼앗기는 쓰라린 운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단지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세상적인 손해나 모든 세상적인 고난에 대해 천 배나 보상을 해줄 영적인 일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 생각을 세상적인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축복이다. 모든 자유의지로 포기하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충만한 영적인 제물로 보상해줄 것이다. 너희는 한때 내가 물질적인 소원이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너희를 도운 것에 대해 이런 것들로 인한 고뇌가 없이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나에게 아주 감사할 것이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아직 나에게 향하는 길에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근심 없이 너희의 진정한 고향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그곳에서 너희에게 정해진 바대로 영원히 축복되게 살 수 있기 위해 모든 소원을 버려야 한다.

아멘

스스로 생각하는 일과 영의 나라와 연결.

B.D. No. 7470

1959년 12월 3일

너희는 자주 영원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연관된 것을 한동안 뒤로 두고 모든 것이 쇠하는 것이고 너희가 영원히 지속되는 쇠하지 않는 재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더 나가 너희의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인지 또는 너희가 아주 희귀하게 올바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과 아직 멀리 있고 도달할 수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의 계명에 따라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사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비평해야 한다. 항상 이런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축복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런 생각하면, 그러나 모든 영적인 생각은 빛의 존재가 이를 알아채고 합당하게 답변을 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이로써 영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세상과 세상의 요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세상의 재물은 헛되고 너희에게 단지 짧은 기간 동안 안락함을 주고 어떠한 영적인 성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너희는 아직 많은 혼을 위한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능력이 필요한 지속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너희는 이 능력을 얻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 하늘나라로 향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너희의 염려와 안건을 아뢰고 그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해져야만 한다. 이 일은 항상 너희의 혼에 도움이 되게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너희 혼을 위한 작업에 필요한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하기 위해 단지 자신과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계속하여 연결이 되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자주 영의 나라에 거하고 의식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선행조건이 요구 된다. 너희가 침묵하는 모든 때 분의 시간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너희의 생각이 너희가 확실하게 도달하게 될 높은 곳을 향한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의 전진이다.

너희는 단지 전적으로 영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헛되고 너희에게 아무런 영적인 성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은 너희를 세상과의 연결로부터 항상 벗어나게 하고 영의 나라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탁하는 혼들을 자신에게 속하게 된 혼들을 굳게 붙잡기 때문에 너희를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할 세상이 너희에게 공격하면, 너희는 이제 더욱 자주 영의 나라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왜냐면 세상이 그의 유혹과 자극으로 사람들을 묶어 두기 때문이다. 이런 자극에 저항을 하고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영적 가치를 가진 영적인 재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그가 이 땅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 축복될 것이다. 언젠가 그는 이런 재물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혼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벗고 모든 헛된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만 하면, 자신이 가진 영적인 재물로 영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혼은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인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혼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되고 반면에 세상의 사람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상태로 영원의 문 앞에 설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은 영원까지 그를 뒤 따라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영적인 재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주 너희의 죽음과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언젠가 혼이 육신을 벗고 저세상으로 들어 가면, 빛과 축복의 정도를 정해 줄 영적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라.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완성에 도달할지에 대한 질문에 유일하게 너희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지는 세상적인 질문이나 세상적인 계획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혼이 너희 혼 위에 누구를 주인을 결정할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의해서도 어떠한 결정을 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항상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절대로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이 유일하게 결정적이다. 이 생각은 어떤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항상 생각과 말과 모든 종류의 일이 일어나 이를 통해 단지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의지에)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시도를 하나님 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서 행한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스스로 어떠한 영향을 따를지 정한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그는 언젠가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했는지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의지의 시험을 위해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혼은 언젠가 자신의 의지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웃에게는 또는 세상의 권세나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자신의 의지의 결정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할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지 또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할지는 가장 자유한 그의 의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단지 자신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하나님께 내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의 운명이 정하여 그가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지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원하는 것을 항상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들의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행하는 일에 영적인 세력의 역사로 인해 다시 방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하는 것 자체는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비판해야 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향하게 요구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이런 정보를 그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가 전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야만 하고 이로써 그가 결정하게 재촉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사람 스스로 싸워야 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단지 긍정적인 세력이나 부정적인 세력이 이런 싸움을

하고 그들 중 한 세력이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의 싸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이 싸움은 사람들의 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혼 자신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속하여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상을 받는 일의 연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자에게 이 혼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부정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제 결정해야만 한다.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이 크기가 육체의 죽음 후의 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운명은 넘치게 축복 될 수 있고 그러나 넘치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혼이 이 번의 이 땅의 삶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혼은 실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구속받는 일이 지연되게 한다. 그러나 의지는 언젠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하여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종말의 때를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활용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B.D. No. 7464
1959년 11월 27일

구원계획은 올바른 질서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된다.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은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한다. 모든 단계는 영적인 존재가 증명해야 하는 기간이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단계를 빼거나 넘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구속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 단계에서 끝이 나거나 또는 끝 없이 연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 한번 육신을 입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끝 없이 긴 시간이 요구되었다. 육신을 입기 전의 기간은 존재들이 자신의 강한 저항을 포기하여 가벼운 형체 안에서 위로 성장하면, 어느 정도 짧아질 수 있다. 이로써 줄어드는 시간은 아직 굳은 형체 안에서 묵임을 받은 존재가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최소의 시간이다.

이런 시간의 간격을 너희 개념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이미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를 체험하게 전에 이 땅에서 끝 없이 긴 시간 동안 지내왔다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은혜를 아주 특별하게 높게 평가해야 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마지막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 다시 굳은 물질 안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너희가 실패하면, 고통이 충만한 길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하게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너희의 길을 가서 불행했던 기간을 너희는 진실로 영원들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이런 상태를 끝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너희의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땅의 너희의 과제는 이미 영원히 지속되는 감옥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에게 많은 도움에 수단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의 길을 헛되게 갈 필요 없다. 너희는 전적으로 확실한 너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인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감옥에 있는 너희를 구매하여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는 진실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에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너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왜냐면 그가 구원을 위해 너희를 돕기 때문이다. 너희 혼자서 너무 연약하게 될 때 그는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한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남김 없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곁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순수한 영으로써 너희의 진정한 고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끝 없이 긴 기간 동안의 포로 상태는 이제 끝난다. 왜냐면 너희 의지가 증명되었고 유일하게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에게 너희의 의지가 향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주는 너희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신성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그러나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단지 짧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직 너희 육체의 죽음 이전에 이런 구속을 받지 못하여 아직 묶인 상태로 저세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너희는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한다.

저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왜냐면 그 곳에서도 너희의 자유의지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받는 일을 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서 너희를 유일하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한 분께 너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이 땅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

너희가 이미 지나 왔어야만 했던 끝이 없는 시간을 생각하라. 이제 너희가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의 상태를 끝내고 너희에게 빛의 나라를 열어주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빛의 나라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너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축복되고 축복된 가운데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길 구하면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라.

아멘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

B.D. No. 7486

1959년 12월 25일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가고 있으면, 너희가 이미 타락 후에 거했던, 가장 깊은 어두움에 비해 너희는 예상할 수 없는 높은 단계에 있다. 너희가 보내 왔던 끝 없이 긴 과정에 비할 때 너희는 단지 적은 발걸음을 움직이면 된다.

영원으로부터 너희에게 정해진 목표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가장 가까이에 거하며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합이 된 가운데 모든 축복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는 진실로 단지 몇 걸음만을 더 가면 된다.

너희가 인간으로 마지막 육신을 입는 은혜를 기뻐할 수 있으면, 너희는 너희의 완성 직전에 있다. 너희는 작은 의지의 시험 후에 내가 다음 말씀으로 약속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록 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너희가 지나온 시간에 비해 단지 짧은 이 땅의 삶 동안 너희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 너희는 내 도움으로 높은 곳을 향한 길을 가기 위해 영원 전에 벗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이 전의 성장 과정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다시 영원에 영원이 걸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함을 생각하면, 너희는 단지 짧은 기간 동안의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너희가 육체의 혼을 굶주리게 하면, 내 영광스러운 나라를 잃게 됨을 생각하면, 큰 책임감이 이 땅에서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두 배로 열심히 추구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너희는 내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기 위해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을 피하고 너희가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빛의 존재로서 저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너희의 성장 과정을 마치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하고 단지 몇 발걸음만 더 가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룬다.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 너희의 힘든 성장 과정을 유감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내 뜻을 행하려고 시도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가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런 진지한 경고를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해준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나는 계속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안에 책임감이 깨어나게 하려고 시도한다.

나는 내 말을 통해 계속하여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내 사랑은 계속하여 너희를 끌어 올리기 위해 너희가 마지막 길을 내 도움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기에 연약하게 되지 않게 애를 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를 원천으로 인도해 너희가 내 생명수를 기를 수 있게 하여 너희 순례자의 길에 능력과 강함을 얻게 한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목표를 추구하고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내 편에서 단지 확실하게 헛되지 않을 이런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하면, 너희를 진실로 목표로 인도하는 마지막 짧은 길을 가게 격려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파문을 분명하게 한다.

나는 너희의 이 땅의 길이 헛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빛과 능력 안에서 전적인 자유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 오길 원하고 너희가 깊은 곳을 벗어나 모든 심장으로 나에게 속하길 갈망하길 원한다. 너희가 깊은 곳을 극복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된 것이다.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빛과 능력과 자유 가운데 창조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너희에게 정해진 바인 너희가 이 땅에서 완성을 이루어야 할 “피조물”에서 “자녀”가 되는 일을 성취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말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게 권면한다.

나는 내 음성으로 너희를 끝까지 뒤따를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피조물들이 축복되지 못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축복되고 영원히 축복되게 남길 원한다.

아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가시밭 길.

B.D. No. 1106

1939년 9월 22일

나는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든 실수로부터 보호한다. 내가 그를 이끌도록 신뢰하며 자신을 나에게 맡기는 사람의 발걸음은 결코 오류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지켜보고,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음성을 들으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은 덩불과 가시를 통과하는 가파른 오르막 길과 같다. 용감하고 모든 힘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고, 자신이 정상에 오른 것에 대해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고, 경로의 모든 어려움을 이미 지나왔고, 그 앞에 온 땅을 볼 수 있는 가장 웅장한 전망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힘들게 올라온 후에 그의 눈이 지금 보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즐거움에 깊이 빠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자녀가 나를 안내자로 선택하고, 내 손을 잡고 가시가 많은 길을 걷는다면, 그의 마지막 날에 그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많지만, 자주 그런 길은 쉽게 갈 수 있고, 모든 종류의 관상용 관목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것들은 이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휴식을 하도록 유혹하고, 상쾌함과 평안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길은 목표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편안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고난이 너희를 압박할 때, 이것 만으로도 너희가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보장이 있다.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가시와 덩불이 있기 때문이다. 가시와 덩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용감하게 모든 계속되는 장애물을 쉽게 극복한다.

너희는 단지 장애물로 인해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편리함을 구해서는 안 되고, 너희의 생각은 단순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위를 향해 가는 길이 너희에게 어렵지 않게 보일 것이다. 길의 모든 곳에서 나의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고 피곤해지고, 휴식을 취할 곳을 찾는 순례자를 보호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위험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기쁜 심장으로, 길의 끝에서 나를 본다는 소망에 이끌려,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 주의를 다른 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모든 일을 피해야 하고, 쉬도록 초대하는 모든 휴식처를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 일들은 인간의 영을 게으르게 하고, 힘드는 위를 향하는 일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극복하지 않고,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고는 나에게 도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존재가 단지 자원하고, 나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이 모든 존재를 끌어 올린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다시 너에게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지치지 말고, 참을성 있게, 너희의 작은 십자가를 견디고, 항상 밝은 눈과 믿는 심장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대로 그들을 돕는 구세주 주님을 신뢰하라고 너의 심장에 촉구한다.

내 사랑이 너를 지키고, 나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는 모든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극복할 수 없고, 걷기 어려운 길에서 섬세하게 운반하여, 이로써 그들이 해를 입지 않고 높은 곳에, 영원한 고향에 도달하게 한다.

아멘

육체적 쾌락. 노년기의 질병.

B.D. No. 1481

1940년 6월 19일

단지 육체에 유익한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생각하는 일은 명백한 부주의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육체적 즐거움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내용이 세상 즐거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충분하다면, 그들이 다른 관점과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에 빠진 사람이 깨어나게 되는 일은 끔찍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몸이 곧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연약한 점과 허약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겉형체인 육체의 겉형체가 허약해지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그는 이제 몸에 더 이상 젊음의 힘이 없으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쾌락조차도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가 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에게 이제 삶이 지루하고 공허하고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이 항상 더 빠르게 쇠약해지는 일은 다시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영과 연결을 이루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을 충만한 사랑으로 돕고, 그에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의 쓸모가 없음을 소개하고, 그가 진지하게 영적인 존재에 관해, 혼의 더 높은 성장에 관해 생각하도록 시도하는 세력과 접촉할 희망이 이제 비로소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자원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고, 단지 순복하려는 의지를 관철시킨다면,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거나 싸울 충분한 기회가 이제 그에게 제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젊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에 이미 이 땅의 쾌락에 대항하여 싸운다면, 이런 일은 훨씬 더 공로가 크다. 왜냐하면 그가 더 빨리 지식에,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가 추구하는 일이 완전한 의지의 자유 가운데 활성화되고, 육체적 고통을 통해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동인이 되어 이런 기쁨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영과 혼이 그에게 모든 긴밀함으로 감사할 것이다. 영과 마찬가지로 다르게 생각하고 원하게 될 그의 혼이 이제 자신들과 같은 존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혼이 이 땅의 삶의 올바른 목적에 대해 알고, 이 삶의 끔찍하게 위험한 형편을 벗어난 것을 깨닫고, 위를 향한 길을 방해하는 권세로부터 사람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하려면, 사람에게 먼저 눈으로 보게 해줘야만 하는 온전하지 못한 영의 존재들의 끔찍하게 위험한 형편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모두는 언젠가 너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성공으로 고난이 너희를 인도하면, 너희는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나는 진실로 이유 없이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사랑이 고난이 너희에게 주는 효과를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주 내 사랑이 충만한 인도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고난을 활용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 심장의 모든 동요를 알고 있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겉으로 보기에 심하게 다룬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면 내가 그들이 육신의 죽음에 도달하면, 내 나라에서 확실하게 소유할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선물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혼이 이런 축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어떤 상태가 되야만 하는 지를 알고 내가 유일하게 혼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를 알고 내가 유일하게 올바른 수단을 알고 이런 올바른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는 너희의 의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상태에 있는 혼이 아직 너무 적게 정화가 되어, 아직 내 충만한 사랑의 비추임을 견딜 수 없고 그러므로 혼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고 이로써 혼이 전적으로 정화가 되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혼이 걸형체를 입게 만든 것이 아니라 혼이 이미 굳은 걸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임했고 이 걸형체를 분해시키는 일이 사람들의 과제라는 것을 알라.

높은 정도의 사랑의 역사가 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크게 기여하고 깊은 고난이 사랑의 능력이 아직 충분하게 강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다. 혼이 육신의 죽음 후에 자유롭게 되어, 빛이 충만한 영의 나라로 올라 갈 수 있게 되면, 너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한 것이고 너희 앞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영원히 놓여 있게 된다.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매일을 길게 생각한다. 그러나 영원에 비할 때 이는 눈깜짝할 사이이다. 너희는 한 동안 고통을 견딜 수 없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부여하지 않는다. 고난이 너희에게 견딜 수 없게 보이면, 너희는 나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너희가 견딜 수 없다면, 내가 인간 예수로써 실제 이 말을 했겠느냐? 그러나 그 자신이 다음과 같은 말로 내 도움을 너희에게 제공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신실하게 항상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자신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음을 알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채워줄 것이다.

아멘

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피하는 일은 온 전함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이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너희가 같은 사랑과 같은 운유와 인내로 너희가 짊어지도록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의미한다. 예수는 진실로 십자가의 길을 갔고 그가 이웃을 위해 인내해야만 했던 고통을 어느 누구도 그에게서 덜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통을 통해 사람들의 큰 죄짐을 해방시켰고 속죄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도 너희 혼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십자가를 진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저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받기에 합당한 혼의 옷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빛의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아직 저항을 의미하는 혼의 걸형체를 동시에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자신의 혼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동안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사람 자신이 혼의 걸형체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너희는 동시에 스스로 걸형체를 제거해야 하고 걸형체로부터 혼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의 혼을 포로로 잡고 있는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죄를 다시 짊어져야 하고 또한 이런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도와야 한다. 너희는 너희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위해 참을성 있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를 선택한 존재들이다.

모든 육체적 질병과 질고는 이런 축복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너희가 인내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시에 너희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죄를 갚는 일이다. 이로써 높은 곳으로가는 길이 영적인 존재에게 더 쉽게 되게 한다. 너희가 영적인 존재를 위한 성장이 시작되기 전에 죄가 이미 제거되도록 만들면서 다시 이런 존재를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한다. 예수는 너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했다.

예수는 또한 너희를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두 가지의 조화를 어떻게 찾기를 원하느냐? 예수는 너희를 너희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길 원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직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를 한다. 예수의 사랑이 너희에게 향한 것처럼 너희의 사랑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게 향해야 한다. 이로써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존재에게 이뤄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너희도 또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의 구속에 기여해야 하고 빛의 광선이 들어 오게 하기 위해 분해 돼야만 하는 걸형체로 너희 혼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돌보는 일이 너희에게 달려 있다. 걸형체를 분해시키는 일은 공황의 역사이고 너희 자신이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가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는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죽음 앞에 두려움. 죽는 순간의 기쁨 또는 고통.

B.D. No. 2145

1941년 11월 9일

사람이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육체를 잃을 수 있지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 두 가지는 그 앞에 자유롭게 놓여있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혼의 죽음이나 생명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리한 점에 아주 적은 가치를 둔다. 모든 살아 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상태는 편안하게 만드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불편한 생각을 덜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한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처럼 살면서, 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이 죽음의 가시를 잃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은, 두려움이 없는, 놀람이 없는,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을 알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된다. 이 땅의 삶을 버리는 일이 고통스러울 필요 없다. 그가 이 땅에서 육체를 중요시하지 않고, 영과 하나가 되는 일을 추구했다면, 혼은 죽음과 싸움이 없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은 이미 영의 나라로 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영의 나라를 자기 고향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은 이제 혼에게 자신의 고향에 대해 설명해줄 것이고, 혼도 영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혼과 영을 더 이상 세상에 묶어 두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육체는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여서, 육체가 혼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혼은 쉽게 육체와 결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나 육체가 자기 안에 있는 영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사람의 육체는 혼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육체가 이 땅에 연연해하기 때문에, 육체는 이런 갈망을 혼에게 전하고, 혼은 이제 자기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 땅을 떠나야만 하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 시간을 멈추게 하거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는다. 혼은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깨닫는다. 이런 일이 혼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고, 혼에게 죽음의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혼이 밝은 빛이 혼에게 비출 수 없는 어두운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혼의 상태는 이제 위로 할 길이 없고, 전적으로 끔찍한 상태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단지 자신의 육체의 행복을 위해만 살았고, 이제 그의 삶의 열매를 거두고, 그의 육체와 혼은 큰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혼이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혼은 일할 수 없는 저주를 받는다. 반면에 빛의 나라에 있는 혼은 끊임없이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자체가 그를 끝없이 행복하게 만든다. 이 땅을 벗어나는 혼의 운명은 생명이거나, 죽음이다. 사람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과 죽음을 정한다. 올바른 때에 세상

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에 대해 쉬지 않고 작업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 죽음의 시간은 환영할 만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죽음의 시간은 겁나는 시간이 아니라, 묶여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풀려나는 시간이다.

아멘

생명의 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2776

1943년 6월 16일

인간의 혼의 성숙한 정도가 아직 아주 낮은 동안에는, 사람 안에 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 일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포로로 잡고 있고, 그가 소원을 성취한 것으로 속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이 땅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인간에게 극도로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 전체를 다르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단지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에 머무는 장소로, 학교로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이 땅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주 이 땅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삶을 최종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구를 받는다면, 쉽게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초점이 육체의 죽은 후의 삶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땅과 이 땅의 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그의 위를 향한 추구는 방해받고, 온 감각으로 세상을 갈망한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를 압박하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그의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인간은 아직 아주 성숙하지 못한 영이다. 다시 말해 그의 혼은 아직 자신 안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에게 깨달음이 없고, 이 땅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에게 끔찍한 생각이다. 그는 즐기기 위해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재물을 갈망하고, 영적인 재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아무리 책망해도 충만하게 책망할 수 없는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고, 사람은 이제 세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생명을 잃을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의 삶을 헛되이 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물질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더 빠르게 포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혼이 더 높은 성장하고, 물질을 극복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실제 과제를 무시하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물질에 묶고, 이제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냄으로써 강제적으로 물질을 벗어나게 해야만 한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실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삶을 향한 의지가 그에게 아주 강해서,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가운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조기에 생명을 잃게 되어야만 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저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혼이 계속 산다는 믿으면서 비로소 죽음은 공포를 잃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실제적인 삶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책 33 은 2576 번의 계시로 끝난다.

책 34 에는 2733-2746 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책 35/36 에는 2747-2776 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책 37 은 2777 번 계시로 시작이 된다.

나열되지 않은 계시는 베르타 듀데의 원고에도 누락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616

1956 년 8 월 8 일

죽음은 단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다. 너희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 내 뜻과 일치하고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다면, 너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죽음 앞의 어떤 공포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너희 혼이 이 땅의 육체가 완전히 불필요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일을 단지 기뻐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자유롭고 빛과 생명이 충만한 삶이 혼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고 그는 육체의 죽음 후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세속적인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단지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은 계속 존재하고 단지 그의 겉 형체가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 머물기 위해 이런 겉 형체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 모두는 너희 자신에게서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죽음은 진실로 그의 가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의 나라에 머물기 위해 너희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 너희의 혼이 육체의 죽음 후에 빛으로 충만한 빛나는 영적인 옷을 입을 전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는 올바른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무거움이 아직 너희에게 달라붙을 수 있고 육체의 죽음 후에 깨어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혼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너희는 깨어날 것이고 혼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운명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을 이긴 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불안한 때에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너희의 혼을 의탁하라. 그가 혼을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가 너희 혼에게 공활을 베풀고 너희 혼이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기를 구하라. 너희는 진실로 이런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축복된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안식은 단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이 모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친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가 무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무로 사라져 소멸 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땅의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깨어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을 부르면, 그들은 단지 그들의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죽음은 단지 새롭고 불멸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일이고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했고 구속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그의 대적자가 세상에 가져온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와 예수의 부활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지만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속사역과 부활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굳은 확신을 주고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잠들고 빛과 축복의 나라의 주님이 계신 곳에서 기쁨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637

1956년 9월 6일

영적인 죽음은 세상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두려움은 육체의 죽음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대한 죽음 후에도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혼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혼이 이런 두려운 의식을 육체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그에게 가능한 동안 죽음에 대항해 거부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혼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모든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활에 대한 도움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청하기만 했으면, 그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

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혼은 전적인 밤 가운데 있고 혼이 다가가고 있는 더 깊은 밤을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성숙한 혼은 전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린다. 혼은 그의 육신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고 자신이 믿는 분에게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공흠에 의탁한다. 이런 혼들은 자주 이미 죽기 전에 그들이 기다리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혼은 행복한 가운데 눈을 열고 육체를 떠나 그들이 보았던 나라로 도피하기 위해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를 가르쳐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웃들이 이런 혼들이 아직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도울 수 있는 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만 한다. 혼이 죽음에 대항해 싸우고 두려워하는 일을 알게 된 사람이 이런 혼이 내적인 평안을 갖게 돕기 원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릴 수 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이런 도움을 느낄 것이고 마지막 구원의 닻줄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이 육체를 떠나면, 혼은 이웃의 사랑에 의해 도움을 청하는 긴밀한 기도에 자신의 귀를 닫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로써 아직 빛과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혼들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도와줘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낀다면, 혼이 축복된 평안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가장 큰 공흠과 사랑의 역사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일은 이제 단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르고 그가 이런 혼을 공흠히 여기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이런 사랑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기도는 혼에게 혼이 가장 어두운 밤을 피하게 해주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아멘

두려움 없는 죽음의 시간. 준비된 자세.

B.D. No. 6042

1954년 9월 4일

영의 나라의 삶을 위해 항상 세상의 삶을 교환할 준비를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분리되는 시간을 절대로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죽음의 시간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내 눈 앞에 올바른 일인지 너희 자신에게 질문하라. 그러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너희 혼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세상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것이고 저세상의 나라 너희를 위한 빛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빛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생명을 이제 자원하여 버리게 된다. 왜냐면 이런 빛의 나라가 너희의 참된 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시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을 너희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땅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위한 준비하는 삶이고 그러므로 너희의 관점을 항상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유일하게 중요한 삶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영의 나라를 믿는다면 너희는 영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너무 적게 생각하게 되고 너희의 모든 힘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사용하고 너희 앞에 놓인 삶을 위해 너무 적게 너희 자신을 준비한다.

빛이 있고 자유로운 평화와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의 옷을 벗는 죽음의 시간이 너희의 구원의 시간이 되어 한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행복하게 이 때를 바라보아야 하고 훨씬 더 나은 삶과 교환하기 위해 자원하여 이 땅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 한다. 그러나 너희가 올바른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너희가 비로소 이런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모든 연관관계와 또한 영의 나라의 자유롭고 축복된 삶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의 영이 깨어나고 너희는 이 땅의 삶에 단지 적은 가치를 부여하고 의식적으로 빛과 축복이 함께 하는 영의 나라의 삶을 위해 추구하게 된다. 너희는 실제 영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의 사랑이 너희에게 빛을 비추면 너희가 비로소 영의 나라를 진리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먼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더 이상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미 영의 나라와 연결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많은 손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매일 내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축복한 마지막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이 땅에서 떠나는 시간이 너희를 위한 빛과 영광의 삶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과정을 마치는 일.

B.D. No. 7959

1961년 8월 6일

너희가 이미 지나 왔던 길은 먼 길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명을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즉 그의 혼들이 이미 이런 성장 과정을 이미 마치고 빛의 나라에 영접이 된 존재들을 제외하고는 너희가 아직 너희의 성장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한때 나를 떠나갔던, 인간으로 이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모든 자유의지로 치르기 위해 이런 긴 성장 과정을 가야만 했던,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너희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깊고도 깊은 곳에서 비록 의무 단계였을 지라도 높은 곳으로 성장했다. 왜냐면 내 뜻이 이런 너희에 대한 내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은 긴 과정을 너희를 위해 미리 예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서는 너희의 높은 것을 향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는 다시 그의 권리를 받는다. 왜냐면 너희는 아직 항상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깊은 곳까지 따랐고 자유의지는 너희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가 자유의지로 그에게 남기를 원하면, 절대로 강요를 하지 않을 나를 위할 할 것인지 또는 그를 위해 할 것인지 아직 새롭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인 단계에서 내 대적자는 너희의 의지에 역사하면서 그럴지라도 너희가 자유롭게 어떤 주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다시 활용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자신에게 묶어 두기 위해 너희에게 모든 술수를 적용하는 그를 막을 수 없다.

나는 그가 너희의 혼을 붙잡아 두기 위해 만약에 그가 혼을 잃었다면 다시 이 혼을 얻기 위해 너희에게 수단을 활용하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면, 너희 스스로 이제 그를 맞이해 그에게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로 그의 강함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가 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단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강한 돕는 자인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곁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비록 너희 사람들이 깊고도 깊은 곳을 극복할지라도 너희가 내 도움으로 끝 없이 길었던 성장 기간을 통해 나에게 현저하게 가까이 다가왔을 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했던 원죄의 짐이 너희를 항상 또 다시 짓누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강한 의지를 너희에게 선물해 주지 않았으면, 너희의 의지는 약

해졌고 절대로 내 대적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 대한 내 대적자의 권세는 아주 커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그가 너희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게 내 대적자에게 묶여 있는 짐을 짊어져 주기를 구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제공 된다. 나 자신을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짐을 넘겨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에게 모든 혼들을 구매하기 위한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제 혼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그는 이제 혼들을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너희는 그의 도움을 통해 이 땅의 길을 마칠 수 있다. 너희는 그의 도움을 통해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이 전에 너희에게 닫혀져 있던 그러나 자유의지로 십자가에서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한 모든 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문을 통해 빛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단지 짧은 시간 만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모든 형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기에 충분하다.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지은 죄가 나를 떠난 데에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한 데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다시 내 사랑의 힘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끝 없이 긴 이 땅의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과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일이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 과정은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해주었다. 너희는 이제 다시 너희를 영접할,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축복을 제공할 내 나라의 후보자이다.

아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B.D. No. 7717

1960년 10월 1일

너희 모두는 다시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모두는 다시 아버지인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육신 안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 심장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달려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영들을 창조할 때 세운 내 목표에 도달한다. 단지 내 사랑이 결정할 수 있으면, 너희 모두는 이미 오래 전에 하늘나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 영원한 법을 어기면서 행할 수 없다. 이 법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던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너희 사람들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은 아주 서로 다른 긴 시간이 걸린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

다. 여러 성장 시대가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고통과 묶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인간인 너희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고통이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미 오래 전에 극복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 가지 않게 너희에게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너희의 인도자로서 나 자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순례자의 길 가운데 너희와 함께한다.

높은 곳에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면, 이로써 너희를 위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해결한 그가 너희를 구속하게 하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은 이 땅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가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타락하였을 때 공의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만 했던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의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를 통해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대가를 지불했고 공의가 무효화 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써 넘치는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이런 희생제사를 이제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의 의지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십자가 아래서 죄를 고백해야만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다시 감쌀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구속했다. 너희가 한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면,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완성에 이른다.

그러면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성장단계 도달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항상 더 높게 성장할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항상 강해질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제한이 없고 나 자신을 영원히 선물해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와 고통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이 빛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너희 형편이 축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의 성장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속하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한때 너희를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귀환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짐으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그러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너희에게 닫힌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죄짐에 대해 용서받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 예수에 관한 설명을 구하라.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그를 믿을 수 있기 위해 이로써 스스로 너희의 죄짐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기를 나 자신에게 구하라. 너희는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 가는 일이 보장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 후에 전적으로 서로 다른 빛의 정도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는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에 너희 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너희가 어떻게 내 뜻을 성취시켰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었는지에 달려 있다. 사랑의 정도만이 너희 혼의 성장을 정한다. 너희를 대신해 사랑을 행할 수 없다.

사랑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너희가 원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 너희에게 정해진 바대로 내 형상이 되기 위해 이 법칙대로 너희는 살아야만 한다. 사랑이 된다는 것은 너희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버리고 모든 저속한 욕망과 싸우고 너희 성품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고 평화를 구하고 긍휼이 있게 공의롭게 인내심이 있게 만들고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을 버리고 항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는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허물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혼은 금강석처럼 선명하게 되고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축복을 의미하는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혼은 죽음을 죄를 부족함을 더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혼은 순수하고 순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까이에 있기에 합당할 것이다.

혼은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그들의 구세주인 내가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한때 그들이 소원한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한때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이 땅에서 이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전에 너희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구해야 한다.

왜냐면 죄짐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고 죄짐을 가지고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다면, 너희를 생명으로 생성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기를 그에게 구하라.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무지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진리를 그가 영접할 수 있게 전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평화와 축복의 나라의 영접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나서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 나를 깨닫는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는다.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나 자신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한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희를 다시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바꾸는 일이 너희의 뜻이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성장하게 너희를 돕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B.D. No. 6850

1957년 6월 12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너희 모두에게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 여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이 땅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하고 너희가 그의 구속역사에 참여하려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의 이 땅의 삶의 목표였다. 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인간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다. 이말은 너희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너희의 죄를 그의 십자가 아래 그에게 옮기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의 신적인 사명을 믿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를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너희의 의지를 선언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생의 문에 도달하려면, 너희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길도 이 문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너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질문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의 사랑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항상 또 다시 들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귀를 막고 모든 말이 공허한 소리처럼 너희를 스쳐 지나가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역사에 관해 듣는 내용은 너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너희 안에서 아직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귀로 들은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축복의 문 앞에서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입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구속받지 못했고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의 피가 너희를 깨끗이 씻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가득한 가운데 영원의 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 자신이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너희의 죄를 의식하고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고 또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그의 용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짐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빛으로 가는 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너희가 여전히 그의 이름이 모든 것임을 믿기 원하고 깊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희를 여전히 짓누르는 죄의 결과인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을 믿기 원하면, 내가 이런 큰 죄짐을 너희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사는 너희가 탄식하는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이 땅의 길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자신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B.D. No. 6579

1956년 6월 25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 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권면해야 할 불가피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그렇지라도 그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아직 나와 가까운 연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때 나를 떠난 죄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고 이 죄가 그들을 내 대적자에게 묶이게 만

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죄를 알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가르침이 알려지면,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한 말을 깨달으면, 그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단지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받기 원했다면, 그들은 확실하게 설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더 이상 이 생각을 떠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단 한 가지의 길 만이 있다. 왜냐면 내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유意志로 죄를 지은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이는 내 끝이 없는 사랑도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하나님을 실제 인정하지만 그러나 단지 말씀이나 또는 표면적인 생각으로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진지한 생각이 느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단지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그의 영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그의 영적인 관점을 날카롭게 해주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질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작은 불쾌감에 빠질 것이고 그에게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1956년 6월 25일)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이웃들과 대화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웃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거했고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당한 인간 예수를 생각하게 그의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알고 나 자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기억나게 하고 그가 가진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영접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람에게 개입하고 그의 저항은 항상 줄어들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아직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가졌던 초기와는 다른 전혀 다른 빛으로 인간 예수가 그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르칠 수 없게 되면, 너희의 의지는 죽음의 시간에 아직 대적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그는 영의 나라에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그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하는 영역으로 영접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하지 않았고 그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영의 나라에서 아직 자신의 하나님의 구세주인 구원자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영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나를 거부했던 모든 존재들을 만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고 내가 구세주로서 나에게 향하는 모든 부름을 듣고 이제 부르는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내 신적인 나라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다. 왜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혼이 단지 이 땅에서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나는 아직 깊은 곳에 있

는 혼을 다시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빛의 나라의 문은 모든 혼에게 닫혀 있다. 그럴지라도 문을 열어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말했고 인간 예수 안의 나 자신이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 곁형체로서 나를 섬겼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이고 영으로써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볼 수 없었던 내가 영의 나라의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이 곁형체를 유지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는 한 형체를 택했고 이 형체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이 거한 형체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대적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아직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의 순간.

B.D. No. 1798

1941년 1월 31일

마은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놀라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놀라며 물리쳐 버린다. 이는 그의 부족한 혼의 성장 상태를 말해 준다. 무의식적으로 혼은 자기의 부족한 상태를 느끼고, 육신의 죽음을 이 땅의 과정의 끝으로 인식한다. 혼은 본능적으로 혼이 이 땅의 삶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다.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를 불안하게 한다. 그는 죽은 후에도 계속 산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심한다. 그럴지라도 사후에 삶이 최종적으로 끝난다는 확신은 없다.

바로 이런 불확실함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죽음이 그에게 적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죽음 후에 실제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깨달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벼운 심장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일은, 빛의 세계에 가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더 이상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고, 물질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땅에 남겨두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소유물이다. 이 세상의 소유를 탐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뻐하며 포기해야 한다. 사람이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벼운 심장으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쉬워진다. 사람의 심장이 연연해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항상 하나의 싸움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음의 시간이 닥침으로 인해 절대로 놀랄 수 없도록, 모든 정욕은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데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가 영적으로 영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면, 그는 단지 자신의 진실된 고향으로 최종적으로 보냄 받게 될 이 시간을 사모한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두려운 무섭고 끔찍한 시간이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그가 오래 전에 꿈꾸며, 사모해왔던 일이 이루어 지는 순간이고, 그에게는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며,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죽음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인생을 의식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이로써 영원한 삶에 합당하게 성장을 했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죽음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이 죽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준, 이 땅의 삶의 시간이 끝나면,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끔찍하게 여기며 피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게 이 땅에서 영원

한 나라로 가는 일을 보장해주는 성장정도에 도달하도록,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한다.

아멘

죽음의 순간.

B.D. No. 2348

1942년 5월 27일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과정은 대부분의 육체가 큰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고통 없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정도가 요구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성장 정도에 희귀하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항상 죽음의 순간이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후에 추구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가 인간의 걸 형체를 벗게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의 혼의 상태에 따라 이제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크거나 적게 힘들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에게 또한 자신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창조주가 혼에게 기회를 준다면, 혼은 저 세상에서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기 때문에, 혼이 저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짊어져야만 하고,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더 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없이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혼에게 더 높은 성장 정도를 가져다줘야만 하고, 죽기 전에 오랜 기간 투쟁하는 일은 항상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한 일로 여겨야만 한다.

사람들은 실제 단지 고난의 상태만을 보고, 이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순간을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단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아주 큰 사랑이 저 세상에서 그에게 더욱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을 갖게 해준다. 이런 사랑이 모든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단지 사람들의 육체의 갈망이 죽도록, 사람들이 더욱 단지 자신의 혼을 생각하고, 혼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도록,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보낸다. 이 일을 성공시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땅의 기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땅의 삶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혼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하여, 그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고난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고난은 항상 혼을 성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었다면, 비록 죽음의 순간이 겉보기에 조용하고, 고통이 없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야만 하는, 다시 말해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은혜이다. 하나님은 혼의 상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혼의 자원하는 자세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한 의도가 실행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면서, 죽음의 순간이 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영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면서, 그를 향해 다가 간다.

아멘

너희는 절대로 너희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서 전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너희의 마지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너희의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다. 너희 혼이 아직 변화될 수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 왜냐면 고난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혼이 저 세상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성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혼이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깨달으면, 혼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여겨야만 한다. 죽음에 고난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끝맺음이 사람에게 축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축복이다. 왜냐면 혼이 실제 고통을 통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축복된 영들의 나라로 즉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혼은 단지 육체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을 떠난다. 혼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의 성장한 입자를 가지고 떠난다. 왜냐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정도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곁형체를 분해시키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자신을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남김없이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구속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였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실제 혼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육체의 고통을 불의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육체가 죽고, 육체의 고통이 끝나는 것을 알고, 비록 혼이 이런 깨달음을 육체에게 더 이상 전해줄 수 없을 지라도, 육체의 고통을 통해 혼이 유익을 취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육체가 혼의 온전함을 느끼면, 육체는 혼에게 거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신의 과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혼과 분리된다. 죽음의 순간은 너희 모두에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혼에게 더 이상 고난이 필요하지 않으면, 혼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단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면, 죽음의 순간은 너희가 빛의 나라에서 깨어나기 위해 너희에게 축복된 잠이 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고난이 아직 필요하면, 하나님께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육체가 단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혼은 전적인 기쁨으로 육체를 떠나고 빛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멘

날마다 종말의 때까지 너희에게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너희가 너희 뜻에 따라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나게 됨을 너희 모두에게 말해 줘야 한다. 너희가 창조하고 역사하는 모든 것이 단지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단지 너희 혼의 구원을 생각해야 하고 모든 세상적인 일은 뒤에 두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너희에게 이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어져서 너희가 행하지 않아도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현재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단지 세상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의 이 땅의 기간이 곧 끝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 혼의 구원이 큰 위험 가운데 있고 너희는 잘못 된 자세를 가지고 산다.

너희는 단지 육체만을 생각한다. 비록 너희가 세상 앞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기 원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으로 남게 될 그러나 너희가 단지 사랑의 삶을 살면, 너희가 그와 연합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 너희는 아직 지나치게 너희 자신을 사랑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희의 삶의 요구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육체만을 위하고 육체를 안락하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혼을 생각하고 혼이 축복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너희에게 이미 내일이 부름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유일하게 혼의 상태가 혼이 저세상에서 맞이할 운명을 결정함을 안다.

그러면 육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쓸모가 없게 되고 사람은 이것을 이 세상에 남겨둬야만 한다. 그러면 단지 육체와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 행했던 모든 노력은 헛되다. 혼은 진정 가난하고 처량하게 영원의 문앞에 선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불행한 혼의 상태를 똑똑히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진지하게 자주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기 원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변할 수 있게 너희에게 아직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진 짧은 시간이 곧 끝나게 됨을 진정 믿으려고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모든 날을 올바르게 살면, 너희가 사랑의 역사를 행하면, 사랑과 선함을 너희 이웃에게 발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서 도움을 주면,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와 연결을 이루면, 너희가 그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 모든 날이 너희 혼에게 부유함을 줄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희생이 될 필요 없다.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세상과 세상의 요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쇠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영적인 부로 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너희는 기도와 사랑을 행함을 통해 그와 연결을 이루고 연결 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한다.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긴밀한 연결이 없이는 너희는 항상 가난하게 머물 것이다.

너희 혼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아주 처량하고 가난할 것이다. 그러나 혼 스스로 벌어드리지 않은 것을 혼에게 선물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단지 가볍게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고 항상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너희 혼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산을 해야만 하는 너희의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게 경고받고 권면받아야만 한다.

생각하고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 너희 혼의 성장을 추구하라. 너희가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선한 의지를 보여주면, 만약에 너희 혼이 언젠가 합당하게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는 선한 의지를 보여주면, 너희는 혼의 성장을 위한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혼의 거처를 바꾸는 일. 육체의 죽음.

B.D. No. 6817

1957년 4월 28일

혼은 실제의 너희 자신이고 불멸하다. 혼은 이 땅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이 단지 나에 대한 저항을 하는 가운데 머물러 이런 저항을 통해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계속 살며 계속 성장하기 위해 거하는 장소를 바꾼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야 하고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해줄 수 있었던 아름다움과 행복함보다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실제적인 너희 자신이 곁형체를 벗는 날을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하고 어려움이 너희로부터 사라지는 날과 너희가 가볍게 어려움이 없이 진실로 너희가 예상할 수 없는 영광을 제공하는 진정한 고향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날을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한다. 너희 혼이 단지 혼을 끝없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음을 너희는 기뻐해야만 한다. 너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편안하지 못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왜 너희 사람들에게 죽음이 끔찍한 일이 되었느냐? 왜 진실로 단지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과정이 너희 안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느냐?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음을 너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혼이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었을 빛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고 그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곁형체를 벗기를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에게 자신의 진정한 고향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밝은 빛이 타오르게 하고 그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없고 그가 어떠한 환란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내 사랑 안에서 자신이 안심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단지 항상 그에게 선명하게 내 뜻을 알려주는 내면의 음성을 따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면, 자신이 죽은 후에 고난이 충만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런 보호와 바꾸는 축복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그가 이 땅의 삶을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왜냐면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올바른 깨달음의 도달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삶을 항상 더욱 증가시키려는 대적하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곁형체에게 주어진 제한을 똑 같이 자신에게도 적용시킨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한 변화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는 영역으로 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후에 아주 절망적인 운명을 짊어져야만 하는 혼과 그들의 진정한 고향의 영광을 전혀 체험할 수 없는 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단지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모든 방식으로 누리려고 한다. 비록 혼에게 깊은 곳을 벗어나 높은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 이 땅에서 보다 더 많은 극복하는 일과 수고가 필요하고 도움이 없이는 이를 수 없고 혼 자신이 의지를 드러야만 하고 이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

나는 소멸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 자신의 행복한 운명이나 또는 고통스런 운명을 만든다.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가 사는 것으로 보지 않고 육체 안에 거하는 혼을 자신의 실제적인 자기라는 것을 깨닫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면, 그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이고 단지 세상의 육체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나 육체 안에 거하는 혼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혼들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자신의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을 갈망할 것이다.

아멘

육체의 죽음 후에 실제적인 삶이 시작된다.

B.D. No. 5696

1953년 6월 12일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해 이 땅의 삶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죽음이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적인 삶이 이제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혼들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행복한 활동하는 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는 빛과 자유와 힘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이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축복될 것이다. 너희는 혼의 성숙에 도달해야만 하고, 너희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혼의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고난과 육체적 고난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하고, 적어도 한가지 좋은 일을 행하지 않은 날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너희를 사랑이 되도록 형성하고, 항상 더 많이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또한 자신의 사랑을 너희에게 더 많이 베푼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자신에게 끌어드릴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결별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끊을 수 없게 아버지와 자녀를 연결시키는 끈이고, 너희가 절대로 이 끈을 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서 모든 걸형체가 사라지고, 너희가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머물고,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너희 사람들은 내가 삶과 죽음의 주인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힘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내가 그에게 내 힘의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제 모든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단지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내 본성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인 죽음의 상태는 내 본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절대로 이런 상태를 원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한때 생성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은 존재를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과 같다. 그러나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거나 바꾸는 일은 내 온전함에 합당하지 않다. 한때 내 힘으로 생성되어 내 의지와 내 권세로 생명이 된 존재는 또한 영원히 존재하고 단지 그 성품이 변할 수 있다. 왜냐면 존재 자신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자신에게 죽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존재는 자신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또한 죽음에 대한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가 스스로 택한 죽음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존재가 다시 생명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 왜냐면 내 힘과 권세 어떤 존재도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심지어 한때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화를 일으킨 내 대적자도 내가 다시 한번 존재들에게 생명의 힘을 제공하는 일을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삶과 죽음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의 일시적인 곁형체인 인간의 육체가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을 정한다. 즉 죽음이 육체의 생명을 끝내는 때를 정한다. 그러나 이런 죽음은 다시 곁형체의 변화이다. 왜냐면 한번 나에 의해 생성된 존재는 영원히 소멸될 수 없고 세상의 곁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는 실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주어진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죽음의 시간도 인간이 공개적으로 나에게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나 자신이 정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죽음의 상태를 끝 없이 연장시킨다. 그러나 결코 그의 존재를 끝낼 수 없다.

너희가 이제 절대로 더 이상 소멸될 수 없고 너희의 이 땅의 생명도 내가 정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너희는 안심하고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겨라. 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이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고 내가 또한 너희가 죽음의 문을 통해 비로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의 문은 단지 완전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죽음이 없이는 진정한 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 이 땅에 거한다. 그러나 너희의 진정한 본향은 영의 나라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영의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한다. 그러면 생명은 파괴할 수 없고 힘과 빛과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는 진정으로 축복되고 축복된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다.

아멘

육신의 죽음 이 후에 걸 모양이 바뀌는 일. 영적인 죽음. 행함과 행함
이 없음.

B.D. No. 2144
1941년 11월 8일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하는데 생명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가 힘을 빼앗긴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그는 죽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걸 형체 자체가 변화된다. 걸 형체는 분해가 되고, 모든 입자들이 다시 새로운 형태 안으로 영접되기까지 분해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입자들이 형체를 벗어나면, 형체는 실제 한때 자신이 정함 받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형체는 이제 새롭게 정함 받는 일을 성취해야 만한다. 형체는 어떠한 새로운 형체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여해야 만한다.

입자는 새로운 형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분해가 되고, 이런 과정을 위해 다시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걸으로 보기에 옛 형체가 사라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의 걸 형체 안에 있는 영적인 입자들이 다른 영적인 입자들과 연결되어 새로운 걸 형체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걸 형체로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이 아직 자신의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입자들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영적인 입자가 다시 이런 새로운 형체를 자신이 거할 장소로 배정받으면, 그의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고, 이로써 형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가, 창조물은 어떤 방식이던지 상관없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행하는 일은 형태 안의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것은, 즉 일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게 성장한다. 단지 죽음의 상태 만이 그의 성장의 정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물질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물질은 변화가 되고, 단지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변화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굳은 형체도, 비록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지라도,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즉 빛의 전달자의 역사와 연관된 빛의 비추임으로 인해 일을 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형체 안에서도 생명이 활동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써 형체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물질이 사람의 눈에 생명이 없게 보일지라도, 전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인간의 단계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가 있다. 인간의 단계에 있는 존재들에게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장 큰 생명의 힘이 흘러 간다. 그러나 사람에게 제공되는 생명의 힘을, 그에게 주어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자신을 위로 성장하게 만드는 자신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그는 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가 사랑을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힘을 부어준 일을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성장은 정지되게 된다. 이런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죽음의 상태이며, 가장 끔찍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는 단지 존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의 상태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존재 스스로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가 그에게 힘이 주어질 때, 이 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 형체에게 죽음은 단지 새로운 겉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동시에 영적인 입자들이, 자신들에 의해 형성된, 겉 형체 안에서 계속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에게 부여하는 생명의 흐름을 섬기는 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당시에 가졌던, 같은 성장 단계에 머물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존재는 그의 일하지 않음을 통해 힘이 없게 되었고, 힘이 없는 상태로 저 세상으로 들어 간다.

아멘

영적인 죽음. 생명의 개념.

B.D. No. 4088

1947년 7월 22일

인간이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죽었지만, 단지 영적인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 반면에, 죽은 생명은 육체에게만 해당이 되는 생명이고, 비록 혼이 주변의 즐거운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혼에게 빛이 없고, 결과적으로 힘이 없는, 죽음 상태가 혼의 운명인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지속되지 않는 단지 것보기의 삶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그러므로 것보기의 삶을 실제적인 삶인 영원 가운데 사는 영의 삶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의 겉형체로 둘러싸여 있고, 사라지는 겉형체를 벗으면, 혼이 어떤 상태로 육체를 떠나는지와 관계없이 너희 안의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된다. 혼은 겉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만, 모든 혼이 자유롭게 원하고 창조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이 혼의 축복이고, 그들이 원래 정함을 받았지만 잃게 된 상태이다. 그러나 원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생명"은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장애가 없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장애가 동반된 이 땅의 삶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람이 아직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하는 대신에 세상 욕망을 성취시킴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그의 혼의 성장을 위해 그에게 주어진 매일을 헛되이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는 의식적으로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돕는다. 반면에 혼은 영의 나라에서 모든 마취시키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짓눌리는 상태로 느껴야만 하고, 혼에게 고통이 돼야만 한다. 이로써 혼이 이런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혼의 무기력이 혼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일을 막는다. 혼은 모든 면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혼과 가까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위험에 빠진 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때까지 굶주

려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이 그런 기도를 영원으로 보내는 곳에서 혼에게 번개와 같이 깨달음의 순간이 임하기 때문이다. 혼이 이런 순간을 활용하면, 곧 혼 주변의 빛이 더 강해지고, 빛이 없는 끔찍한 고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생명을 향한 갈망이 이제 혼 안에서 깨어나, 혼이 일을 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이는 혼이 이 땅에서 단지 혼에게 비로소 올바른 생명을 주는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삶에 단지 유일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음의 가시가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죽음 후에 진정으로 죽음의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뿌리 박혀 있고, 자주 그들이 단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 주변의 혼들의 고통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거해야만 하게 될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법은 저세상과 같이 이 땅에서 성취시켜야만 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인간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그의 죽음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이 땅의 생명은, 영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사람이 영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열심히 추구하면, 그가 그의 영이 그에게 하라고 지시한 대로 사랑을 행한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운명적인 사건들. 영적인 죽음.

B.D. No. 7853

1961년 3월 17일

창 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죽음 후에 혼이 산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 빠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믿지 않고 단지 이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세상적인 영역에서만 산다. 그들의 생각의 영의 나라를 찾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의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생각을 영접하고 따르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피조물이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 정도는 아주 낮아 그들은 새로운 파문을 받게 될 아주 큰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들의 의지가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래를 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느 정도 생명에 도달했다가 자신을 다시 죽음에 드린다. 그러나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은 모든 자유 가운데 마지막 의지의 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선물하기 원한다.

사람들은 이 생명을 그의 손으로부터 받아 영접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이 생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이 땅의 세상에서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들에게 이 땅의 삶에 운명적인 일을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행복과 소망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하게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항상 세상적인 소원과 욕망이 성취되면, 사람들은 항상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의 생각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삶은 그에게 단지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남게 되고 삶이 절대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 놀라서는 안 된다.

모든 종류의 불행한 일들이나 자연재해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 가면, 세상의 재물이 파괴되면,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을 당하면, 이런 일들은 단지 세상적으로 행복하여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의 심장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불행하기 때문이다. 혼들은 만약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이 땅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죽음을 당할 필요 없다. 혼은 죽을 수 없다. 그러나 혼은 이 땅의 사람의 생각과 삶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혼이 종말 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혼이 종말 전에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며 영적인 위험 가운데 그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도움과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혼은 피할 수 없이 새로운 파문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종말 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사랑의 하나님에 부합 된다고 믿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는 사랑이다. 왜냐면 혼의 영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적인 일보다 더 많은 고통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혼이 다시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로 자신을 생성되게 한 분을 위해 결정하는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등을 돌렸던 이로써 불행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는 같은 과제를 가지고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은혜를 받기까지 끝이 없이 긴 기간 동안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시켰을 때 그들은 다시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 가면, 그들이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면, 그들의 의지가 이제 올바르게 결정하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육체의 부활.

B.D. No. 6000

1954년 7월 13일

진리를 향한 의지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지식을 보장한다. 진리 안에 서기 원하는 너희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받고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기 원하면 항상 축복을 받는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의심의 원인이 되는 것. 내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있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에 관한 교리. 인간이 이해하기 원하는 것처럼 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내 모든 말의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이미 영적 지식에 조금 뚫고 들어갔을 때 쓸모 없게 된다. 내가 말한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읽으려는 의미는 진실로 내 말씀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말씀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나 자신에게 이성을 구하는 사람, 그러므로 진리를 꿰뚫으려는 사람은 곧 말씀의 영적 의미를 가볍고 분명하게 깨닫고 편지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 너희에게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과 동의어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은 "육체로 걷는"와 같은 의미이다." 너희의 혼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한, "생명"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너희에게 아직 이상하다면. 지속적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곁형체에 머무르는 일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통해 이 곁형체를 잃어 버리고 또한 삼자 분열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몸, 혼, 영. 그들에게는 육체, "육체"만이 있고, 그 죽음과 함께 "생명"이라는 용어는 소멸된다. 그들을 위한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그들의 물리적 곁형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일은 어려운 교훈이다. 인간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육체의 부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 부활에 동참한다면, 축복이 될 수 있다. 저세상에서 믿는다.

이 믿음으로 그는 또한 자신의 성품을 바꾸고, 이 변화는 깨어남으로 이어지고, 내 영으로 빛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영적 의미를 파악하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 상태에서 발생한다. 어두움을 벗어나 빛 속으로 그러므로 처음으로 밤의 어두움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일은 일어나고 스스로 드러난다. 낡기 위해 살아난다.

죽은 상태에서는 증언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삶에서 일어난 일, 너희가 이 땅에서 육체로 걸었을 때 이제 나타나고 자신을 드러내며 너희를 증언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새 생명을 위해 새로 입히기 위해 물질적인 육체가 먼지에서 다시 떠오르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혼을 위한 썩기 쉬운 곁형체 일뿐이다. 그일은 썩지 않고 죽을 수 없고, 땅에서 헤어질 때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일은 아직 너머 나라에서 생명의

로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아직 부활할 수 있다. 그녀가 이제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취 하셨고 이 육체도 이 땅의 사망을 당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너희에게 증언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말의 진실의 표시로 그의 몸을 키웠다. 그러나 그일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 었다. 그의 몸은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혼은 영적인 옷을 입고 이 땅의 육체에서 모든 영적 존재를 제거했다. 이일은 이미 그의 생사를 통해 완전히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영적 물질이기도한 육체의 물질적 물질은 이미 이 땅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여 혼과 합류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눈에 띄게 된다. 완전한 영은 땅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 갔을 때 너희는 부활 후에도 육신을 갖게 될 것이다.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다. 이일은 육신대로 만들어 질 것이다.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육체로 죄를 지었다면, 너희의 혼은 그것을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혼은 다시는 무거운이 땅의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일은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짧은 땅 시간 동안만 머물렀던 것이다. 물질적 창조 의미와 목적, 이 창조물을 통한 타락한 영적 성장에 대해 아는 사람은 나에게 성장할 목적으로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무의미한다. 그러나 너희가 "육체" 의 부활에 대해 절대적으로 말하기 원하면, 내 말씀이 떠오를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도 너희를 증언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나는 육신이 된 말씀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 모두가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할 때 내 말 자체가 너희를 위한 심판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육체가 부활 될 것이다. 그일은 음식으로 너희에게 제공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너희는 배고픈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희 자신이 강해지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설명은 또한 진리와 일치하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그가 너희를 위해 "육체"가 된 그에게 자신을 먹이고 물을 주도록함으로써 이 땅에서 육체로 너희의 삶을 사용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때문. 비록 인간이 아직 영적 지식에 침투하지 않았더라도 참 지혜는 모든 설명에서 너희를 향해 빛날 것이다.

너희가 깨어난 영이라면 너희는 자원하여 받아드릴 것이다. 내 말씀의 잘못된 해석은 너희에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또한 깨워야 한다. 왜냐면 이 잘못된 해석은 내 대적자, 그의 목표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동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향한 모든 믿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해석은 또한 인간과 내 말씀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영적 저조함을 증명한다. 편지가 죽는다. 단지 영만이 생명으로 깨어난다. 너희는 모두가 영을 요청하고 깨달은 생각을 위해기도하고 순수한 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활. 육체의 부패.

B.D. No. 7262

1959년 1월 21일

이 땅에 사는 너희 모두의 육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혼은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혼이 이 땅에서 생명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죽음 가운데 머물 것이다. 즉 생명을 갈망하는 너희 모두에게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혼의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단지 이 땅의 육신의 삶의 그에게 아마도 갈망할 만한 것으로 보고 그 자신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육신의 삶을 연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비록 그에게 언젠가 부활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혼의 생명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이 생명으로 부활함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해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단지 믿지만 그러나 아직 이런 믿음을 올바른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지 않는 동안에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가장 큰 기적을 의심하기 때문에 자주 작은 의심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의 부활을 의심한다. 그러나 내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 그의 의심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그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선명한 증거가 된다.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단지 이 세상의 삶을 떠나 영원히 살게 될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감을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항상 논쟁하던 문제였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부활을 통해 육체의 부활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가 단지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항상 단지 그들의 영의 눈 앞에 볼 수 있게 나타난 예수의 영적인 육체를 보았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선명하게 알지 못했다. 예수의 육체의 모든 입자들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화되었다.

즉 인간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을 때 영의 의복을 입었다. 너희 사람들도 너희가 생명으로 부활할 때에 마찬가지로 이런 영의 의복을 입게 될 것이고 물질로 된 육체는 남겨 둘 것이고 육체의 입자들의 성장 과정은 계속 진행 된다. 다시 말해 육체는 부패되고 육체의 입자들은 다시 성장 과정의 초기에 있는 다른 형체들을 살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입자들은 절대로 더 이상 혼을 감싸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곁형체로 자신을 제공하지 않고 혼과 함께 부활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혼이 내가 인간 예수로써 이 땅에 거할 때 그들에게 약속해 준 생명에 도달하기 위한 추구를 하면, 즉 이 땅에서 내 뜻을 성취시켰다면, 혼은 부활한다.

너희 모두에게 부활은 확실하다. 그러나 부활의 때는 너희 자신이 결정한다. 너희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육체 안에서 너희가 행한 역사는 실제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 따라 부활이 이뤄진다.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너희가 행한 역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며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맞는 죽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는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어둠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고 죽음의 상태이다. 그럴지라도 이는 너희 자신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생명을 위한 정함을 받았지만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위해 죽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를 주기 위해 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의 삶을 통해 너희 영이 깨어나게 하면, 이를 단지 믿을 수 있다. 깨어난 영이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증명해줄 수 없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을 추구하라.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능력과 빛과 자유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B.D. No. 3258

1944년 9월 16일

사람들이 계속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죽게 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비참하게 하는 일을 무기력하게 당한다면, 죽음이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난의 실제 원인과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 일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은 항상 더욱 고통스러운 형태가 되고, 인류는 전적으로 놀라는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온 큰 불행에 경직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비참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혼을 위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그들을 깨우기 위해 가장 극심한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의 혼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운명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이 땅에 고난이 증가되는 원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목숨을 잃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면 오래 사는 일이 그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잃게 하고, 단지 전적으로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혼에게 유익이 되기 보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성장정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퇴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들이 저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땅의 상태가 숨겨져 잊지 않고, 그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그들의 혼의 구원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믿음 없음과 사랑이 없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자신에게 어려운 이 땅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 큰 고난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그들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삶이 주지 못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 땅의 세상의 고난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혼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이 이를 깨닫는다.

큰 고난이, 그들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면, 모든 위험을 물리칠 수 있고, 물리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큰 위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전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질 가장 큰 위험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을 끝마치게 하고, 비 인간적으로 보이는 불행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는 항상 사람의 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가운데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혼을 구하려고 시

도한다. 왜냐면 그가 행하는 어떤 일도 잘못이 없고, 모든 일이 선하고, 사람들의 혼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조기 사망. 하나님의 긍휼. 높은 나이.

B.D. No. 3260

1944년 9월 18일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 상태에서 이 땅의 삶에서 영의 나라로 부름 받을 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런 일이 또한 겉으로 보기에 불의한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 택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고통 당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관점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항상 알고, 이로써 이 땅에서 더 높게 성장하는 일이 의문시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끝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존재가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 받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까지 항상 단지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갈지, 정지시킬지 또는 퇴보하게 할지를 정한다. 이런 일은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졌던 자신의 성장 상태를 증가시켰는지, 그런 후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는 위험에 빠졌는지 또는 그가 그의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그런 후 퇴보할 위험에 빠졌는지에 달려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높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이는 일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계속 퇴보하거나, 계속되는 삶을 자신의 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그가 육신을 입는 은혜의 기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더 오래 살게 되면, 그의 죄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젊은 나이에 높은 곳을 추구했고, 그의 추구를 중단한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드리고, 그에게 저세상에 계속 성장할 기회들을 준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노년에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에게 아직 부족한 성장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오랜 동안 자신의 혼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는 더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장수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그의 삶을 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의해 정해지고, 절대로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이 맘대로 정한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적게 주의를 받고,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가르침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자신을 거부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에 도달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이 땅의 수명도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목적에 아주 합당하고 성공적으로 깨달은 대로 수명은 아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을 절대로 조기에 끝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계속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성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자주 혼이 완전한 배도 하는 일로부터 보호한다. 즉 하나님의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퇴보로부터 혼을 구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높은 나이에 도달한다. 반대로 높은 나이는 주변 세계가 볼 수 없을지라도 서서히 성장하는 일을 증명한다. 장수하는 일은 항상 은혜이다. 그러나 단명한 삶도, 비록 사람이 항상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항상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아멘

창조의 과정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했다

B.D. No. 8770

1964년 3월 4일

창조의 과정은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비록 내가 진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창조과정은 깊은 곳에서 서서히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 없이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조상들의 책에서 성경에서 이를 비유를 통해 창조의 과정을 묘사해 너희가 이해하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아직 깊은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과정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창조는 내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창조의 내 의지의 작품이었고 작품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려고 했다.

누구든지 깊이 알고자 하는 자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없는 모든 창조물들을 생성시킨 한 권세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게 깊은 연관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기 전에 그는 내 사랑의 힘에서 흘러나온 자립적인 모든 존재들의 원래 초기를 알아야만 한다.

그는 이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해 나간 것을 이로서 이 존재들이 지고 있는 원래의 큰 죄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그에게 창조의 생성과정과 창조물을 통한 귀환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다. 아직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문자에 집착을 한다. 그는 절대로 선명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영이 깨어난 사람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들은 끝 없이 긴 이전의 성장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항상 창조물 안에서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는 아주 깊이 타락하여 내 의지에 의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기 위해 그들에게 성장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미미한 형체에서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형체를 갖게 될 때까지 최고로 서로 다른 창조물들 안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창조물도 시작이 될 때는 단지 가장 성장하지 못한 영들의 집합체였다.

그들의 입자들은 서서히 형태로 압축이 되어 아직 굳은 물질이라고 불릴 수 없는 기본요소로 볼 수 가있는형태가 없지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는 원소가 되었다. 왜냐면 물질 안에 전적으로 가장 길들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지혜로 올바른 정도로 모든 것을 분산시켜서 모든 요소들을 내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하여 각각의 정해진 목적을 수행해야만 하는 형태로 했다.

그래서 서서히 볼 수 있는 창조물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 땅에 초목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물의 세계에서 성장 과정을 거친 더 많이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을 이런 창조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자연법칙에 의해 주어진 비록 아주 적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지라도 첫 생명을 가진 존재인 창조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아주 작은 생명체에서 모인 영적인 존재들이 뭉쳐서 모든 이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신적인 창조의 정점인 인간들에게 유용하게 되기 위해 점점 더 크고 힘이 썩 형태를 가진 동물의 세계까지 발전해 나가는데 다시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인간의 혼은 한 타락한 영에게 속한 그리고 분해가 되어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서서히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입자들을 모은 것이다. 모든 창조물들이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창조의 역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에 의해 눈깜짝할 사이에 창조한 것이 아닌 것처럼 결과적으로 인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될 수가 없었다.

창조물들은 나 때문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타락한 피조물들 때문에 창조 된 것으로써 타락한 자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들은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 나타난 것으로써 정해진 성장 정도에 도달한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성장의 길을 계속하여 가게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가 필요할 경우에 항상 만들어 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창조물들이 주기적으로 생성되게 되었다.

식물의 세계는 광물의 세계가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좀더 가벼운 걸형체를 요구할 때 필요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작은 가장 작은 생명체들도 식물의 세계 이후에 생성되게 되었다. 나만이 언제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필요로 하게 되는지를 짐승으로부터 아담이전의 인류에까지 그 안에 육신을 입은 혼의 입자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언제 영적인 존재가 모여서 혼으로써 마지막 형태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될지를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창조물인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했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너희의 시간개념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비록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창조물들을 가진 이 땅이 준비되어 이 땅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영원한 시간이 전이라고 할지라도 내 귀환시키는 역사는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 왜냐면 주기적으로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큰 변화와 변경이 이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게 된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기간을 산정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희 인간들이 이에 해당하는 빛의 정도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올바르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면 이전에는 너희는 너희의 이성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동안에는 비유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한다. 영이 깨어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깊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지혜들은 그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빛의 나라에 그가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종말의 때의 은혜. 종말 전의 죽음. 저 세상.

B.D. No. 3135

1944년 5월 28일

현 재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강박함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이웃을 공홀히 여기지 않고 이로써 자신의 사랑없음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때가 사람들의 타락을 증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파괴시킬 생각과 가장 생각해낼 수 없는 수단들을 생각해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런 수단을 사용해 그들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은 증가할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동자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동자에게 동조하고 그의 계획을 지원해주는 모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바라본다. 심장의 모든 움직임이 은혜의 정도를 결정한다. 종말이 다가오면, 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보장이 된다. 그러나 종말은 피할 수 없게 다가오고 사람들의 행동이 종말이 빠르게 다가오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내를 더 오래 행하고 사람들에게 자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자주 줄지라도 인류를 더 낮게 만들 수 없게 된 한 시대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한다.

이 시대는 인류의 성장에 아주 특별하게 은혜가 충만한 시대이고 이 시대가 너희가 구원을 받기에 전적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는 자기 자신의 혼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의 선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거하는 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단지 육체만 성공하고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혼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혼은 계속되는 모든 이 땅의 기회를 빼앗긴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심판 전인 이 땅의 종말 전에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어 저 세상에서 영접을 받고 저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직 저 세상에서 계속 성장하는 일이 보장된다. 이 땅에서 자신의 결정을 하지 않은 혼들에게 종말 전의 죽음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면 그는 저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고 이로써 아직 중단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거나 또는 그의 저항이 아주 크지 않다면, 성장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을 돕기 원하는 혼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자신이 계속하여 퇴보할 수 있고 다시 굳은 물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까지 긴 이 땅의 과정을 가야만 한다.

하나님은 옛 땅이 사라지게 하기 전에 많은 은혜를 준비해 두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에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여는 지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혼을 위한 유익을 얻는다. 그들이 모든 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닫는다면, 그들은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머물게 될 수 있다. 또는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통해 모든 은혜의 선물이 자신에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여 능력을 아주 많이 받음으로 믿을 수 없게 빠르게 자신을 높이 성장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이고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사람들을 돕기 때문이다.

아멘

긴 수명과 짧은 수명.

B.D. No. 7538

1960년 3월 4일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너희 스스로 시간적으로 가늠해볼 수 없는 너희의 이 전의 성장 과정에 걸린 긴 시간과 비교하면, 길지 않다. 너희가 일찍이 영원한 세계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이 짧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열심으로 너희 혼을 돌보아야 한다.

너희에게 항상 단지 가능한한 너희는 혼에게 제공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기간이 단지 짧으면, 너희는 혼에게 양식을 제공해 혼이 굶주리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풍성하게 음식과 음료를 혼에게 제공하고 절대로 아주 오랜 동안 이 땅에 살게 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이 죽게 되는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의 의지가 선하고 혼이 성장하게 도우면, 혼은 아주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수명을 정하거나 수명을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무지가 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혼의 구원을 두려워해야만 할 필요가 없게 편안한 가운데 매일을 자신의 마지막 날로 볼 수 있게 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큰 구별을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 일찍이 부름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을 위해 작업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들이 이런 혼들을 이 전에 대적자로부터 빼앗지 않으면 항상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대적자의 분노에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영적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산다. 그러나 나쁜 삶이라고는 할 수 없게 산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저세상에서 계속해 성장하게 그들을 돕길 원한다. 저세상에서 비록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전혀 책임감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쉽게 전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의 혼의 운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단지 너희의 혼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된다.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너희 혼이 마지막 성장을 하게 돕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거할지 또는 짧게 거할지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령에 도달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이전의 성장 기간에 비할 때 짧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아주 짧은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성숙함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에 달려 있지 않고 단지 이 기간을 목적에 합당하게 활용하려는 너희의 의지에 달려있다.

너희의 혼이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이 너희에게 제시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강조한다. 이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이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다. 너희는 항상 사랑을 행할 수 있다.

비록 너희의 삶이 아주 짧을지라도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 혼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헛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너희의 책임은 더욱 클 것이다. 만약에 너희의 삶이 짧아지고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역사한대로 심판을 받는 마지막 날에 전적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남아 있으면, 너희는 단지 감사해야 한다.

아멘

쇠하지 않는 존재. 자살하는 일.

B.D. No. 6807

1957년 4월 16일

너희는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것은 영원히 더 이상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대적하는 존재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내 권세로 가능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반항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를 떠난 존재들을 다시 얻기 위해 항상 시도한다. 왜냐면 나에게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들을 향한 내 사랑이 전적으로 멸망시키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나에게 의해 창조되었고 첫 번째로 나를 떠나 타락한 영인 내 대적자도 절대로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도 또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무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고 나는 그의 성품이 내 영원한 질서에 전적으로 반대가 된 것으로 확정하고 너희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경고해줄 수 있고 나는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로부터 내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는다. 단지 내 사랑의 빛이 그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내 사랑의 빛에 대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영원히 저항하는 가운데 머물 수 없고 그도 언젠가 비록 그의 의지에 변화와 나에게 귀환을 이루기까지 아직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나에게 돌아오고 최고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멸될 수 없다. 나에게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 타락한 존재가 얼마나 오랜 동안 자신의 저항 가운데 머무는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나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나에게서는 시간 개념이 없고 천년도 나에게서는 하루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들이 얼마동안 전적으로 불행한 가운데 생명과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머무는 지는 그들에게 중요하다. 너희가 너희의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의 측량할 수 없게 긴 기간을 돌아볼 수 있게 되면, 너희는 끔찍하게 놀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무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또한 육체의 죽음 후에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계속 존재하고 너희는 단지 아주 크게 저항을 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끝없이 긴 기간을 어둠과 고통 가운데 거쳐야만 한다. 너희가 최종적으로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다시 얻으면, 그러나 이 상태에서 실패할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써 저세상에서 영원한 기간 동안 빛의 나라가 너희를 받아들이기까지 투쟁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육체로 된 걸형체를 계속되는 이 땅에 과정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다고 믿을지라도 너희는 인간으로서 너희의 존재를 없앨 수 없다.

나로부터 한때 생성되어 나온 영적인 존재는 소멸될 수 없고 너희의 실제적인 자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살을 통해 너희가 단지 너희에게 생명과 축복의 없는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할 내 성장 과정에 개입하고 너희가 내 뜻과는 반대로 행하고 너희 맘대로 행한 것이고 잘못 행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서 내 구원계획이 너희를 위해 만들어낸 기회를 빼앗고 동시에 너희의 성장 과정을 중단시키고 만약에 너희가 저세상에서 더 나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질 가장 큰 위험에 빠진다.

너희가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는 일이 너희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최종적인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 산다는 믿음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사람들은 큰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지 않는다.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대적자가 사람들의 불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왜냐면 내 대적자 자신이 깊은 곳으로 끌어들인 영적인 존재가 축복된 생명에 도달하는 일을 내 대적자가 막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하는 기간은 그에게 영원한 기간이 될 것이다. 비록 대적자가 자신을 강하고 권세있게 여길지라도 그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바닥에 쓰러지는 때가 올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소멸을 소원하는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소멸될 수 없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내 사랑의 빛을 갈망하고 이 빛을 받게 될 것이고 비로소 생명으로 깨어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B.D. No. 6005

1954년 7월 19일

너희의 마지막 속박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너희 사람들에게 시간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너희 혼에게 좋은 것으로 깨달은 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졌고 내가 맘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혼의 모든 성장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땅에서 타락할 위험이나 또는 더 성장할 가능성을 안다.

내 사랑과 긍휼이 또한 혼의 퇴보를 막기 위해 인간의 삶을 조기에 끝내거나 또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항상 지혜로운 결정에 따라 수명을 연장시킨다. 왜냐면 내가 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육체의 생명을 자기 맘대로 끝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사랑과 긍휼에 개입하고 너희 혼이 온전하게 되도록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구원의 계획에 개입하고 너희 혼에게 해를 끼친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 안에서 아주 큰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활용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저세상에서 너희에게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위를 추구하고 너희 혼의 상태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을지라도 너희는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것을 잃었고 혼이 가라 앉을 큰 위험이 있고 혼이 자기 맘대로

생명을 끝마친 일이 반항이었던 것처럼 혼이 반항하고 이런 돌아선 상태에 머물게 될 큰 위험이 있다. 이런 혼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큰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들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진다.

나는 진실로 모든 사람의 곁에 있고 또한 심지어 가장 큰 고난도 사람이 단지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줄어든다. 고난은 또한 단지 너희 생각을 나에게 돌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로써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한다. 사람에게 이 유가 없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혼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혼이 이런 고난을 통해 위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이 나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내 뜻을 어기고 마지막 구원을 위해 내 사랑과 은혜가 혼에게 준 생명을 버리면 혼은 자신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왜냐면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에게 은혜이고 내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이 영원히 자유롭고 축복될 수 있기 위해 갈 수 있는 높은 곳을 향한 마지막 단계이다.


나는 인간 심장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진실로 공의하게 판단한다. 나는 내 피조물의 연약함을 고려한다. 그러나 내 피조물에게 잘못이 없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하면 즉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한다. 인간은 자신이 개입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없고 그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다스릴 때까지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주관자인 분에게 혼이 도피할 때까지 저세상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아멘

연소. 가속화된 분해의 과정.

B.D. No. 1899

1941년 4월 28일

 든 것이 구원을 향해 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더 높은 성장의 과정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이제 물질과 분리된다면, 영적인 존재는 물질을 극복한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항상 완전히 성숙하여 이 땅의 변형된 형체가 필요없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마찬가지로 물질인, 새로운 형체 안에 거한다.

그러나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자마자, 이 땅의 형체의 변화는 중단이 된다. 즉 혼이 이 땅의 마지막 형체를 벗어나, 이제 어려움이 없이 모든 물질을 벗어나,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간다. 이 땅의 마지막 형체인 육체이다. 육체는 이제 다시 분해가 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육체를 형성하고 있던 영적인 입자들이 아직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영적인 입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더 높이 성장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영적인 입자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입자들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 곳에서, 이런 과제를 성취하면서 섬기기 위해, 그런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존재가 섬김을 통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섬길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더 높은 성장 과정이 중단이 된다. 이런 일은 존재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인 존재의 고통의 시간은 실제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성장에 개입하여,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을 이제 불태우거나, 화학적 수단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연적인 분해를 방해한다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게 준 사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고,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야만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을 통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 생명의 개입하여 종결시키지 않는 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다시 흙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함 받은 대로 이 땅에 넘겨져야 한다. 혼이 육체를 벗어난다면, 혼을 향한 육체의 과제는, 즉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과제는 성취되었다. 그러나 육체가 완전히 분해가 될 때까지, 비록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주어진다. 반면에 빠르게 분해시키는 방식으로 인해 남게 된 영적인 존재는 지극히 작은 섬기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분해의 과정을 통해 혼과 합류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주 잘못된 오류이다. 겉형체의 영적인 존재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 운명은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인간의 혼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다시 가기 위해, 무수한 혼의 입자들과 연합해야 하는 운명이다.

그렇지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사람들이 잘못 믿는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만일 그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더 높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는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그의 믿음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또한 육체의 겉형체 안에서 가는 이 땅의 과정을 짧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을 얻지 않는다면, 외적인 방법을 통해, 단축할 수 없는, 그의 성장을 위한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섬기는 과제를 부여할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만 한다.

아멘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을 염두에 두라.

B.D. No. 2912

1943년 10월 6일

죽음의 시간을 명백하게 의식하라.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영원을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의 이 땅의 기간을 위해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계산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점검해보라. 너희가 사랑을 실천했는지 점검해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매시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돼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죽음으로 너희의 힘도 끝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혼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나면, 너희가 더 이상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라. 너희 자신이 만족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자신에 대해 가장 엄격한 비판을 하라.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아직 너희에게 주어진 매일을 활용하라.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아직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너희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을 행함으로 이 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죽음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죽음의 시간을 정하면, 너희가 한 시간도 늦출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달으라. 하나님께 긴밀하게 공활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원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너희의 성장을 보장해주는 힘을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라.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는 목표를 단지 명심하라. 이런 목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다. 항상 매일이 이 땅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자신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죽음을 기억하라는 심각한 경고.

B.D. No. 5329

1952년 3월 4일

너희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동안 살지를 모른다. 아무도 자신이 부름 받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지를 모른다. 너희의 인간은 너희가 내일 너희의 재판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재판관이 너희의 이 땅의 삶과, 너희의 의지를 사용한 일에 대해, 너희가 행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이 땅의 삶의

결과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부름 받는 시간인 너희의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일은 은혜이고, 너희는 이 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몹시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말할 수 없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 가운데 축복된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힘을 잘못 사용하여 단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는 일이 너희에게 불행이다. 왜냐면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고, 저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놓친 일을 보충하기 위해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너희는 큰 어려움 가운데 너희에게 견딜만 한 운명을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살고 있고, 무관심하게 너희의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과 훈계와 경고를 무시하고 육체의 생명을 돌봐 확실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날 때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너희가 얻은 영적인 재물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너희가 많은 영적인 재물을 보여줄 수 있느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희를 놀라게 하느냐? 너희가 재판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재판관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너희의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희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너희의 상황을 바꾸라. 왜냐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자신이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시간이 다되었을 때 단 한 시간이라도 너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이 시간이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소멸되지 않고, 저 세상에서 그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너희가 이를 수 있는 일을 성취시키려고 시도하라.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혼의 생명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저 세상에서 너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점을 보상하는 일이 말할 수 없게 너희에게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아직 주어진 매일을 활용하라. 왜냐면 너희가 재판관 앞에 서게 되는 죽음의 시간이 아주 빨리 오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혼에게 도움이 된다.

B.D. No. 7445

1959년 11월 3일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의 시간적인 제한을 생각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왜냐면 너희 육체의 죽음 후,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스스로 만든 축복된 상태나 고난과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생각하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주 죽음을 생각하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헤아려 보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짧은 기간 동안에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함이 이해할 수 없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느낌으로 이미 너희 혼이 계속 사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나"인 너희 혼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이 계속 산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항상 단지 너희 혼에게 유익하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확실하게 죽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너희에게 단지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혼을 위한 작업을 하려는 혼이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혼을 완성에 이르게 하려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얼마 동안 자신이 아직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 안에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세상이 그를 유혹하고 그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자신으로부터 물리치고 항상 단지 가능한 것을 삶으로부터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영적인 재물이 없이 저세상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저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두운 가운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거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운영에 대한 경고받아야 한다.

너희가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면, 너희는 틀림 없이 너희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무능력하고 어두운 가운데 죽는 것을 느낌으로 두려워하고 이전에 이미 너희가 빛과 능력을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짧은 동안이라도 항상 영적인 생각을 도와주는 영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면, 영이 내면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죽음과 죽음 후에 대한 생각은 영을 향한 생각이고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이 유익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특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자주 말씀이나 사례를 통해 행하게 자극을 받아야 할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죽어야만 함을 자주 생각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음 후의 너희 혼의 상태를 아직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단지 너희 혼을 위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하게 살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제로 고령에 도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 땅의 삶이 단지 아주 짧을 수도 있다. 그는 항상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성숙해지고 자신의 성장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영을 향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단지 자신의 거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혼이 이제 거하게 될 영역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혼이 거하게 될 영역은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빛과 축복의 나라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B.D. No. 5336

1952년 3월 14일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에 단지 적게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제가 요구하는 정도까지만 세상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하라. 그러나 쉬지 않고 이 세상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내 나라를 추구하라. 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이다. 반면에 이 땅의 세상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기쁨과 재물을 멀리하고,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고, 나에게 질문하면서 너희 생각을 무한 가운데로 보내고 내 답변을 찾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너희가 거하게 될 곳인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영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 땅의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고, 너희는 너희가 세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영의 나라에 속한 재물을 받게 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통해 너희의 육신의 죽음 후에 너희를 다시 영접하기 원하는 너희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부르기를 원함을 이해하라. 내 나라는 빛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단지 너희가 빛을 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추구했다면, 이로써 너희가 언젠가 내 나라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될 나에게 속한 나라의 후보자가 되었다면,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런 내 말은 너희가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내 나라의 영접을 받기 원하면,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나는 세상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주인이 내 대적자임을 너희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나라를 이 땅의 세상에 대항하는 나라로 여겨라. 나는 너희를 내 나라로 이끌기를 원한다. 왜냐면 나는 이 땅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 땅은 고난과 시험의 골짜기이고, 이 땅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할 장소이다. 그럴지라도 이 땅은 지속적으로 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땅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에 비교할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단지 성장하는 장소이다. 사람 자신도, 이 땅의 물질적인 걸 형체도 헛된 것이다. 이 형체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해야 할 영적인 존재가 단지 잠시 동안 거할 처소로 섬긴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하지 못했고 이로써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나라가 내 대적자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영의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고, 다스리는 권세자이고, 빛과 축복 만이 있고, 내 나라에 들어온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이 빛과 축복을 나누어 준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에 적게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라. 너희가 이 나라에 관해 꿈을 꾸어 볼 수도 없는 이 나라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약속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

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혼이 영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일.

B.D. No. 5916

1954년 3월 28일

가능한 한 자주 영적 영역에 들어가고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시도하라. 너희의 혼이 너희가 생성되었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나라로 솟아오르게 하라. 이 나라에서 혼은 이 땅에서 진실로 찾을 수 없는 양식과 음료를 제공받는다. 양식과 음료는 혼이 축복된 영의 나라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너희를 형성하기 위한 올바른 수단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혼은 아직 훼손된 상태이고 변화돼야 하고 혼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만 한다. 혼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혼은 확실하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혼에게 부족한 것이 혼에게 전달돼야만 하고 또한 한때 너희의 고향이 돼야 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혼에게 전달된다. 혼이 더 자주 고향으로 향할수록 혼은 영의 나라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변화되는 일을 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더 많이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땅에는 이런 보물이 없고 이런 보물은 너희가 단지 빛의 나라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로 빛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 땅의 모든 혼은 자신을 빛의 영역으로 끌어 올려, 빛의 영역에서 강하게 해주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는 이제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을 빛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 양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어떤 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강요받지 않고 그가 원하는 만큼 자주 자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이 높은 영역으로 상승할 어떤 기회도 지나치지 않고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빛과 힘으로 혼을 돕기 원하는 영적 친구들의 영역으로 올라가도록 사랑이 충만한 권면을 받는다. 생각을 통해 이런 나라와 이루는 모든 연결과 모든 기도와 모든 영적인 질문이 영의 영역으로 향하는 일이고 혼이 절대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게 된다.

사람이 더 자주 침묵하는 가운데 은둔하고 너희의 생각이 이 땅의 세상을 더 많이 떠나게 하고 이로써 생각이 빛과 축복이 있는 곳에 머물면, 너희는 또한 빛의 세계의 거주자들의 더 많은 보살핌을 받고 너희 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영의 은사를 받는다. 즉 영의 은사는 혼이 죽음 후에 이 땅에서 추구했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빛의 나라의 거주자들이 혼을 마중 나와 혼을 영접하고 혼이 이제 자신이 신적인 피조물로서 빛과 함이 충만했던 상태를 다시 얻게 하고 혼이 이제 자녀로서 영원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혼이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한다.

아멘

나는 이 땅의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죽음 후의 너희의 혼과 너희 상태를 생각하라고 부르짖는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의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후에 무엇이 오는지 생각하라는 목적으로 아주 어려운 전환점이 너희에게 다가 오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전환점을 알려주기 원하고, 모든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알려주기 원한다. 너희가 비록 현재에는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가 현재 아직 진지한 진리를 환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버릴지라도, 때가 되면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쉽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게 된다면, 끔찍하게 놀라는 때가 오기까지 단지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너희는 삶을 잘못 활용하고, 쓸모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혼을 생각하여 혼이 저 세상에서 빛과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평정심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일이 단지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 혼이 어떠한 상태로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는 너희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너희의 생각이 실제 악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영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에는 너무 세상적인 너희의 생각을 바꾸도록 긴급하게 경고한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처럼 나는 나에게 속한 이 땅의 자녀들을 부른다: 너희 혼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종말이 되기까지 시간이 단지 얼마 없기 때문에 서두르라. 더 늦기 전에 너희를 변화시키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떤 운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라. 혼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든 상태에서 혼이 계속 산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 가운데 너희 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결과를 짊어져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가 삶을 잘못 사용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한다.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없이 산다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 계명을 성취시키지 않고, 너희가 단지 세상을 위해 살고 그러나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너희는 거부할 수 없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한다. 영의 나라에 아주 서로 다른 영역이 있다. 너희의 성장 정도에 따라 혼에게 최고로 행복한 영역이 있고,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성장 정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는 너희가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를 변화시키도록, 너희가 너희 혼의 영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뒤로 하도록, 높은 곳으로부터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요청한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내 부름을 들으라. 스스로 생각해보라.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 왜냐면 내가 항상 또 다시 예고했던 날이 거부할 수 없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너희 혼을 돌보라. 그래서 너희가 앞 두고 있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라.

아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

B.D. No. 6549

1956년 5월 17일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표에 달성하려는 진지함에 따라 짧아질 수 있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너희는 또한 아주 쉽게 완전히 잘못된 길을 택할 수도 있다. 험난한 길은 절대로 깊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깊은 곳으로 유인하기 원하는 자는 너희가 가도록 유혹하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힘든 길을 통해 너희가 그에게 다가오도록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땅의 길이 너무 쉽고 즐거우면, 너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너희가 옳은 길을 가는 지 너희가 가는 길이 영원한 고향으로 가게 하는 길인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대부분은 만족하고 죽음 후에 너희의 혼의 삶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상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의 성장을 위한 힘이 있어야만 한다. 너희가 나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절대로 쉽게 정상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성장하기 위한 수고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럴지라도 너희는 성장하는 길은 가게 된다. 그러므로 평탄한 길이 절대로 목표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라.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라. 모든 고난과 수고가 너희가 가장 높은 곳의 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는 절대로 아래에서 찾을 수 없고 항상 높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성장하는 길을 벗어나 넓고 쉬운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면 너희가 언제든지 너희의 목표를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너희가 넓은 길에서 좁고 어려운 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제공되고 마찬가지로 이와 반대의 일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고 내 대적자가 너희를 유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가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곳으로 너희가 가도록 만들기 위해 매력적인 영역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쁨과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누리는 너무 수월한 이 땅의 삶은 넓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이 길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파른 길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아직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매우 의심스러울 수 있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그의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 지를 모르고 그가 마지막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향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가 놓친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 지를 모르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삶에서 아직 자신의 목표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될 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삶이 평온하고 항상 즐거워 보이는 이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웃은 아직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고 그는 아직 그를 깊은 곳으로 유혹하려는 자로부터 아주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내 손에 의해 인도되는 너희는 또한 이 땅의 삶을 즐거워 할 수 있고 단지 너희의 기쁨과 갈망이 너희 이웃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기쁨과 갈망과 다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주는 선물은 종류가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 재물보다 사람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주는 선물은 동시에 너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일찍이 넓은 길에서 걸보기에 통과할 수 없게 보이는 좁은 길로 향한다면, 너희는 진실로 잘못 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뒤에 둔 것을 갈망하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빛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목표인 너희의 아버지 집의 나에게 안전하게 도달하게 된다.

아멘

넓은 길. 유혹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B.D. No. 6177

1955년 1월 27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이 길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도하고 즐겁게 산책하면서 갈 수 있다. 이 길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제공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며 머물게 하고 체험해보게 한다. 그는 절대로 외롭게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자기와 같은 즐거움과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같은 길을 함께 갈 것이다. 왜냐면 그들 모두가 단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그들 모두가 같은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일을 잘 이해한다.

이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다.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위로 성장하게 하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이 길을 피한다. 그들은 좁은 길이 다른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타락하게 하는 그러므로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없는 넓은 길을 피한다.

항상 또 다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빠져나가는 갈림길이 나타나고 이 갈림길 앞에 내 종이 서있어 넓은 길을 벗어나려는 사람과 진지한 의도로 위로 향하려는 사람을 인도한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게 하는 넓은 길을 벗어날 수 있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도를 제공하는 자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면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나타나는 길목에서는 항상 넓은 길이 특별한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수 많은 거짓 된 빛들이 비추어 좁은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더욱 큰 오류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빛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런 넓은 길은 세상의 권세자가 만들었고 그는 항상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심심하거나 황량하지 않게 신경을 쓴다. 특별히 위로 향하게 하는 좁은 길이 갈라져 나가는 곳에서는 모든 유혹하는 기술이 동원 된다. 그러면 눈이 한곳에 머무르게 되고 사람은 아주 쉽게 갈림길을 보지 못하고 유혹하는 기교의 희생자가 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유혹에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그는 이런 유혹들의 무가치함을 알기 때문이고 넓은 길을 통해서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다른 목표인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갈라져 나가는 길을 구한다. 그들은 자원하여 자원하여 자신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분을 신뢰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길을 함께 가게 만든다. 이런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들은 실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포기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훨씬 더 귀한 것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제공하는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속적으로 극복함을 통해 이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아멘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과 높은 곳으로 가는 좁은 길.

B.D. No. 4503

1948년 12월 5일

너희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 너희가 나에게 도달하기를 갈망하면, 나와 다시 하나가 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심장에 없다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 나는 진실로 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성취시킬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단지 실제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목표와는 거리가 먼 넓은 길을 가는 일에 대해 경고한다. 자신을 나의 대적자에게 잃는 세상의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간다. 너희가 가야하는 길은 좁고,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길에 들어서서 일을 주저하지만 그러나 이 길은 너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목표로 이끈다. 게다가 빛의 존재가 또한 자주 너희를 나타나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가 장애물과 돌과 절벽과 덤불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이로써 너희가 그들로 인해 넘어지거나 해를 입지 않게 한다.

너희는 이 험난한 길을 아무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한 발짝도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넓은 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너희의 길을 어둡게 하는 역광을 너희에게 비추기 때문이다. 시선을 넓은 길로부터 돌리고,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강하게 해줄 부드러운 빛이 너희를 위해 길을 밝혀줄 것이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고, 너희 손을 잡고 너희 삶의 마지막까지 길이 넓어지고 평탄해지고 너희 아버지의 집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를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빛이 충만하고 기적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단지 좁고 험난한 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나의 나라로 환영할 때까지 너희를 이끌 수 있다.

너희는 수고를 감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수고를 내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고난과 수고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어둠으로 이어지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최종적으로 어둡고 섬뜩한 영역으로,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런 길을 피하라. 너희의 이 땅의 길을 쉽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길은 단지 짧은 길이지만 죽음 후의 삶은 끝없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라. 길이 너희에게 적게 자극적으로 보일지라도 너희는 놀라지 말고, 이 길을 가라. 손을 나에게 펼치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영의 나라는 실제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른 영역이다. 만약에 사람이 아직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두 나라는 전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이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려는 의지가 진지할수록 이 나라는 실체가 될 것이고 항상 더욱 영의 나라가 자신의 실제 고향이라는 느낌을 갖고 이 땅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가는 짧은 기간을 가진 사라지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의 영역은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항상 또 다시 싸워야만 할 것이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생각으로 세상을 도피하고 영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기 위해 강제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자신의 진지한 의지라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로 인한 사랑의 삶 한 가지가 그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면 인간의 혼은 이미 영의 나라의 뿌리를 내린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다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한 사랑인 올바른 사랑이 존재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아직 자기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는 세상나라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에게 영적인 세계는 믿지 못하게 보일 것이다. 그에게 이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멀리 있어 그로 하여금 이 세계와 연결을 구하게 자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보이는 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는 이 세계가 사람들의 생각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랑의 정도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에게 확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불타 오르면, 그는 이 세상보다 영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런 영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자신이 이 나라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내면의 있는 것을 거론할 것이다.

그는 영의 나라를 유일하게 추구할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이웃에게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를 추구하고 항상 이 땅의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헛되지 않은 것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서 세상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뒤로 두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영의 나라와 연결되어 머물며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훨씬 빠르게 내적인 평화를 찾을 것이다.

사람은 이 땅의 세상을 통해 절대로 전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닫고 그가 항상 단지 세상 재물을 갈망하며 세상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면, 그의 삶은 완벽하지 못하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세상이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혼은 영의 나라로부터 부유함을 제공받으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영의 나라의 땅에 들어서고, 혼은 비로소 진정한 고향을 찾고 혼은 비로소 영의 나라를 자신의 고향으로 깨닫는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영의 나라가 실제임을 깨닫고 혼이 한번 고향에 도달했으면, 혼이 자신을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이 나라를 그에게서 더 이상 빼앗을 수 없음을 안다.

아멘

영원을 위해 창조하고 일하라.

B.D. No. 6305

1955년 7월 7일

영원을 위해 창조하고 일하는 일이 이 땅의 너희의 과제이고 너희가 이 과제를 성취시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아직 영적인 목표를 위해 추구하는 일에 지치지 않기 위해 싸움을 견뎌야만 할지라도 너희의 현세적인 운명은 보장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의 너희 아버지를 보고 이제 올바른 자녀권을 얻기 위해 추구한다면, 너희는 또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유익한 삶으로 깨닫도록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신뢰가 자녀를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잘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을 위해 창조하고 일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위를 바라보며 모든 일을 행하고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나를 추구하고 내 뜻 대로 삶을 산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나에게 속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왜냐면 그가 자신에 대해 자신의 기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그가 진지하게 답을 원하면, 생각을 통해 깨닫도록 인도받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영원을 위해 일하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내 인도와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강함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그는 고립되어 높이 성장할 수 없게 되고 그는 또한 높이 성장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내적으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을 내 자녀로 느끼지 않고 내 안의 자녀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단지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보고 모든 감각으로 갈망한다. 내가 그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삶의 짐이 초기에는 아직 그를 짓누르게 된다. 그러나 이 짐은 항상 더 가벼워질 것이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삶의 짐을 해결하고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하고 대신에 그의 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영원을 위해 창조하고 일하라.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모든 짐과 수고를 짊어지라. 왜냐면 이런 모든 일이 진실로 너희에게 단지 최선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고 나와 연합을 이루라. 내 임재를 추구하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도록 자신을 나에게 의지하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지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일어난다. 너희에게 세상의 기쁨이 적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진실로 최고의 부분을 택한 것이고 내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아주 많이 받아 너희가 다시 분배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분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단지 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찾도록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내 나라를 진지하게 구해야만 하고 너희의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늪에 갇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실제 목표를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내 대적자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라. 그러나 내가 항상 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인도를 맡고 너희의 진정한 본향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공향으로 가는 길. 기도.

B.D. No. 2125

1941년 10월 24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길은 먼 길이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 인도하는 길에 가기 전에, 너무 많은 잘못된 길을 가고, 목표가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면, 그의 땅의 삶은 헛된 삶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는 염려할 필요가 없이 길을 갈 수 있고, 비록 길이 때때로 힘들고, 통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의 손을 잡고, 바위와 돌과 가시와 덤불을 통과해 항상 또 다시 안전하게 목표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사람이 눈을 위로 향한 채 이 길을 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간다면, 이 길은 짧은 길이다.

모든 사람이 항상 드려야 할 기도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걸음도 홀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당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위험 가운데 저의 가까이에 계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저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긴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은혜와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순수한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시선을 당신에게, 영원한 집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아멘